14일 Market Index
코스피 6008.81 (-26.54)
코스닥 823.88 (-13.15)
금리(국고채 3년) 3.883 (+0.026)
환율(원·달러) 1335.80 (-9.30)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모디 총리 만난 현대 정의선

정의선(왼쪽)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3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현대차그룹

공무원 1만명 세종 대이동 '추가 수요' 주택 임대 비상

세종 부동산, 매매 약세·전세 강세
임대차 시장 빠듯… 전·월세난 우려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으로 공무원 약 1만명의 세종 이전이 추진되면서 세종시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전 발표 직후 세종시 매매시장에선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에 매도를 미루려는 문의가 이어졌다. 반면 전·월세시장은 매물이 없어 단기 임대주택을 전전하는 공무원도 있다. 기존 임대차 시장마저 빠듯한 세종이 추가 이주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 44곳이다.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9929명 규모다. 정부는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하는 27개 기관·2995명부터 내년 이전을 시작하기로 했다.

세종 부동산시장은 매매는 약세지만 전세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5일 기준)까지 세종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0.9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4.46% 올랐다. 매매시장이 약세를 이어가는 동안 임대차시장의 주거비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세종정부청사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기관 이전 발표 이후 이주 수요가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집주인의 호가 상담이나 투자 문의가 먼저 들어오는 분위기다. 공무원이 다수 거주하는 도담동 도램마을 아파트 인근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려야 하는지 묻는 연락이 있었다"고 했다. 어진동 한뜰마을아파트 인근의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급하게 집을 처분하려던 일부 집주인이 매도 시점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초 8억원을 생각하다 급매로 7억 5000만원까지 낮추려던 집주인이, 내년 기관 이전까지 기다리면 가격을 더 올려서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1차 이전 때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은 매물이 많이 있고, 공무원이 모두 내려올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1만 명 중 20%만 매매를 하더라도 세종이 워낙 소도시인 데다 물가가 올라서 1차 때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매시장에서 가격 회복 기대가 나타나는 것과 달리 임대차시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세종시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939건으로 지난해 같은 날(1522건)보다 38.3% 감소했다. 전세 매물은 21.6%, 월세 매물은 52.4% 줄었다.

〈2면에 계속〉

/성채리 기자 cr56@

동전주 퇴출 앞두고 법적분쟁 예고

금융당국, 상장사 40곳 관리종목
사유해소 못하면 22일부터 상폐
시가총액 미달 기업은 폐지 유예
퇴출대상 기업, 줄 소송 나설 듯

빠르면 오는 22일 '동전주'(주가 기준 미달) 퇴출 기업이 나온다. 법적 분쟁도 예고된다. 이미 시가총액 기준 강화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터라 '동전주' 퇴출 조치까지 법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체질 개선 대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주가가 낮다고 기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주가 1000원 미만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사는 코스피 7곳, 코스닥 33곳 등 총 40곳이다.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기업에서 순차적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전망이다.

동전주 퇴출 요건은 지난 7월 도입됐다. 미국 나스닥의 1달러 미만(Penny Stocks) 주식 퇴출 규정과 유사한 구조다. 오는 7월1일부터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내에 연속 45거래일 동안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폐지된다.

시장에서는 '동전주' 퇴출 대상에 오른 기업들이 줄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동전주 퇴출 요건이 '시총'을 문제삼은 법원 판단과 유사해서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거래소가 45거래일 기준이이 왜 타당한지 실증 자료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동전주 퇴출 기준도 같다. 다만 신설된 제도로 '조기 시행' 논란에서는 자유롭다.

한 코스닥 업계 관계자는 ""동전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이 액면병합 등을 통해 퇴출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퇴출 기업들이 나온다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가총액 미달은 관리종목 지정을 유지하되 신규 상장폐지 결정과 진행 중인 정리매매 절차 등을 유예하는 것"이라며 "동전주 관련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시총과 주가만을 따져 상장폐지하는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코스닥에서 올들어 지난달 4일까지 8개월간 주식 감자 또는 병합을 공시한 기업은 285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4.8배로 늘었다.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상장폐지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안유미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시총, 주가 등 지표와 기업의 재무, 사업 상황이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 만큼 상장폐지 절차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부의 쭉정이 솎아내기 정책이 성공하면 코스닥이 오를 걸로 보고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코스닥 관련 A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투자자는 "정치적 업적 추진 과정에 코스닥 투자자들만 놀아난 꼴"이라며 "거래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美 국채금리 상승… 韓 조달비용 상승 압박

해외 금리상승 압력, 국내시장 반영
美 10년물 국채금리 상관계수 0.69%
지난 8월 가계·기업 대출금리 상승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대를 나타내면서 한국은행이 해외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기업의 조달비용 부담을 경계하고 있다. 한은은 국내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외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 국내 시장금리에 추가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14일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공표한 10년물 국채금리는 5.21%다. 올해 첫 공표일인 1월 2일의 4.19%보다 1.02%포인트(p) 높다. 10월 9일의 5.24%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5%대를 이어갔다.

신현송 한은 총재도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거버너 토크스' 대담에서 대형 기술기업의 초장기 회사채 발행을 최근 장기금리 상승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AI 산업의 투자 확대와 자금조달 수요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국내 시장금리 동조화

해외 금리 상승이 국내 차입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로는 시장금리다. 한은이 금융위기 이후 한·미 금리 인상기를 분석한 결과 10년물 국채금리의 상관계수는 0.69였다. 해당 기간 두 나라의 장기금리가 함께 움직이는 정도를 보여준다. 국내 금리의 실제 변동 폭은 국내 경기·물가 전망과 채권 수급 등에도 좌우된다.

해외 금리 상승 압력이 국내 국채금리에 반영되면 회사채·은행채 등의 조달여건에도 영향을 준다. 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만기가 돌아온 채무를 차환할 때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은행의 조달비용 상승은 신규 대출금리와 대출 갱신 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李 대통령, 강훈식 사의표명 23일 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을 임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69년생인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시 38회로 입직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국세청 차장 등을 지냈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임 신임 실장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서예진 기자 syj@

메트로 한줄뉴스



▲靑, 5번째 '국민통합' 유튜브…李 지적한 극단주의 극복방안 모색
▲한성숙 총리 "토착비리, 부정부패 고리 끊겠다…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사진 뉴시스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 "국민 신뢰 훼손"
▲국방장관, 광주 제1전비 방문 "확고한 영공 대비태세·군공항 이전 완수" 당부
▲與 "국정감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신속 추진…'신천지' 후속조치도"
▲정부, 청약 브로커 일당 39명 검거…통장 불법 거래로 분양권 전매

정부, 서비스산업 지원 확대… "반도체와 달려갈 성장주자"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동반성장 모색
화장품 분야 AI 기반 상품개발 지원
이형일 부총리, 국회 관심·협조 요청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분야의 동반 성장을 추진한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이 중 화장품 부문의 경우, 펀드 조성을 통해 AI(인공지능)를 접목한 상품 개발 지원에 나선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TF(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와 함께 달려나갈,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 하나가 서비스산업"이라고 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하다. 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K-콘텐츠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이 도약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깝고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민생산업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양극화 완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도 본격화하겠다"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고도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범부처 협업방안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 ▲제2회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세부 추진방안 ▲11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 중 인공지능·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책이 향후 주목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AI를 K-뷰티에 접목하기 위해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대·중견기업의 스타트업 투자에 펀드가 함께 투자하는 방식으로 AI 피부진단과 맞춤형 화장품 등 새로운 뷰티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또 기술력 있는 화장품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쉽도록 대출금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최대 95%로 높인다. 보증료율도 0.2%포인트(p) 낮춘다.

AI가 피부 상태를 분석하고 자동화기기가 개인에게 맞는 화장품을 만드는 서비스도 육성한다. 외국인이 평소 쓰던 앱으로 결제할 수 있는 국내 매장은 올해 4만 개에서 내년 8만 개로 늘린다.

우선 250억 원 규모의 '오픈이노베이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국내외 대·중견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펀드도 해당 투자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40억 원까지 함께 투자한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 기업에는 올해 1200억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우대보증이란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쉽도록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대출금 비율을 높이고, 기업이 내는 보증료를 낮춰주는 제도다. 또 중소 화장품 브랜드에, 초기제품 생산 필요 자금을 연간 3억 원 이내·5년 만기의 융자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AI 피부진단과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도 확충한다. 현재 제공 중인 18개국 1만7000여 명의 피부 특성 정보를 내년부터 AI가 학습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하고, 조사대상 국가를 누적 19개국으로 늘린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방한 외국인 등 2000명의 메이크업 전후 사진과 설문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체험·결제 기반도 확대한다. 알리페이 등 22개국 71개 앱과 연동되는 표준 QR코드 설치 매장을 올해 4만 개소에서 내년 8만 개소로 늘려 국내에서 익숙한 앱으로 간편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韓, CPTPP 발효 후 수출품 47.7% 경쟁력 하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산업연구원 CPTPP 전후 경쟁력 분석
"비회원국 지속시 시장접근 조건 격차"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비회원국 지위가 지속될 경우 역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CPTPP 가입을 미룬 사이 역내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 약 절반에 달하는 품목의 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간한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CPTPP 발효 전(2012~2018년)과 발효 후(2021~2024년)의 대(對)CPTPP 역내 대칭현시비교우위지수(RS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RSCA가 하락한 품목에서 CPTPP 11개 회원국들은 경쟁력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RSCA(Relative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는 특정 국가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이 세계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대표적인 무역 지표다.

보고서에 따르면, CPTPP 발효 전후 한국 수출품 5185개 중 2474개(47.7%)의 경쟁력 지표가 하락했다. 15개 전 업종에 걸쳐 한국의 역내 경쟁력이 약화된 가운데, 특히 조선 업종은 한국의 하락 폭과 CPTPP 회원국의 상승 폭 격차가 15개 업종 중 가장 컸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전기전자·자동차·석유화학 등에 걸쳐 고르게 경쟁력 하락이 관측됐다. 대세계 수출액 상위 품목 중 파라자일렌, 전기자동차, 승용차 등의 역내 RSCA 하락 폭이 컸으며, 특히 자동차 부문(배기량별 승용차 및 전기차 등 3개 품목)의 역내 경쟁력 위축이 뚜렷했다.

보고서는 자동차 품목 등의 부진 원인 중 하나로 '관세 및 시장접근 조건의 격차'를 꼽았다. 한국은 CPTPP 11개국 중 유일하게 멕시코와 특혜무역협정이 없어 최혜국(MFN) 관세를 부담해 온 반면, 회원국들은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석 기간 이후인 2026년 1월부터 멕시코가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일부 품목에 5~5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불리함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CPTPP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질 경우 CPTPP 시장에서의 입지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향후 관세 등 시장접근 조건 격차의 개선에 대한 압력 확대가 예상된다"며 "특히 하락 품목을 대상으로 CPTPP 시장 내 경쟁력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적 관점에서는 멕시코와의 통상 환경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정위, 1.4조 규모 밀가루 부산물 담합 적발

6개 사업자, 최대 2100억 과징금 전망

국내 주요 밀가루 제조사들이 8년 넘게 사료 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규제당국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 6개 밀가루 부산물 제조·판매 사업자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임직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 매월 밀가루 부산물(소맥피·등외분 등)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가루 부산물은 식용 밀가루 제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생산물로, 주로 가축용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이 기간 담합에 영향받은 관련 매출액만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0.5~15.0%로, 매출액에 단순 적용시 최대 21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해외 장기금리 상승세 지속시 금리·주가 변동성 확대

›› 1면 '美 국채금리 상승…'서 계속

8월 예금은행의 가계·기업 대출금리는 모두 상승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38%로 전월보다 0.16%p,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66%로 0.18%p 올랐다.

한은은 당시 기업대출 금리 상승에 단기시장금리 상승 등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9월 이후 해외 금리 움직임에 앞선 8월 대출 취급분을 집계한 것이다.

◆ 국채·AI 기업채 발행 확대

한은은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의 배경으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각국의 재정건전성 우려,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를 꼽았다. 미국에서는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주요 기업의 회사채 발행 확대도 상승 요인으로 가세했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13일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FSR) 발표 관련 공식 설명자료에서 물가 압력과 재정 불균형, 국채와 민간 부문의 대규모 채권 발행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 위험을 제시했다. 성장과 기업 실적이 금융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기존 취약성이 충격을 증폭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차입을 활용한 채권투자도 위험 요인이다. IMF가 앞서 공개한 GFSR 분석 제2장에 따르면 미국 국채 잔액 중 헤지펀드의 보유비중은 2022년 약 4%에서 2025년 9%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펀드는 빌린 돈으로 국채를 사고 선물을 매도해 가격 차이에서 수익을 얻는다. 추가 담보 요구나 자금조달 충격으로 투자 규모를 급하게 줄이면 자산 매도와 유동성 감소를 통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지난 12일 국감 업무현황에서 해외 장기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금융여건이 긴축되고 금리·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시장금리가 추가 상승압력을 받고 이에 따라 가계·기업의 조달금리 상승폭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정부, 주거·교통·이주비 지원 대책 마련

›› 1면 '공무원 1만명 세종…'서 계속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월세 매물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올 하반기 새로 발령을 받아 세종으로 내려온 공무원 중에는 입주할 집을 찾지 못해 한두 달 동안 단기 임대주택에 머무르다 이사한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어진동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월세는 올랐는데 들어갈 집은 없고, 단기 임대는 한 달에 150만원씩 하니까 공무원들이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신규 입주를 통해 임대차 매물을 늘릴 여력도 당장은 제한적이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추정치에 따르면 세종에서 내년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0가구다. 2028년 상반기 예정 물량도 1122가구 수준이다.

가족 동반 여부와 기존 주택 유지 여부에 따라서도 주택 수요 규모와 유형이 달라질 전망이다.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자녀가 어리면 가족이 함께 정착하는 편이지만, 서울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공무원 혼자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세종에 집을 사도 대부분 서울에서 살던 집을 팔지 않고 유지한다"고도 귀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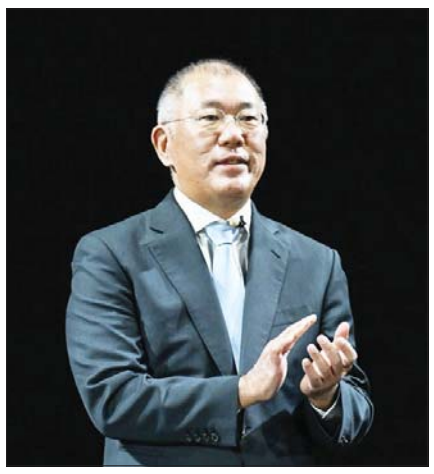
한편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해 주거·교통·이주비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 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채리 기자 cr56@

현대차, 인도 연산 100만대 시대… 설계·R&D 현지화 속도

정의선 회장, 푸네공장 준공식 참석
옛 GM 공장, 생산기지로 탈바꿈
2032년까지 155억弗 대규모 투자

푸네공장 연산 32만대까지 확대 추진
전기차 5종 출시·글로벌 수출 확대
국내 부품사 120여곳 동반성장 기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차



"지난 30년간 인도는 현대차의 글로벌 성장과정에서 핵심 축, 신공장 준공식으로 인도에서 새로운 장(章)을 열 것."(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한때 가동이 멈췄던 인도 자동차 공장이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공장 곳곳에서 생산 설비가 돌아가고 임직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진 가운데, 현대차는 인도 시장 진출 30주년을 맞아 생산 확대와 연구개발(R&D) 현지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해 장기 투자 의지를 밝힌 것도 인도를 글로벌 성장의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14일(현지시간)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탈레가온에서 푸네 신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과 데벤드라 파드나비스 마하라슈트라주 총리, 이성호 주인도대사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2020년 가동을 멈춘 옛 제너럴모터스(GM) 공장이 현대차의 세 번째 인도 생산기지로 재탄생한 것이다.

정 회장은 환영사에서 인도와의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30년 전 처음 인도에 진출했을 때부터 현대차는 현지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며 "오늘 준공식은 현대차가 인도와 함께 걸어온 여정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뜻깊은 자리이며 푸네공장 준공은 인도의 미래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강한 확신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차가 인도 진출 당시 목표로 현지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었다고 돌아보며, 소형차 쌍트로를 시작으로 인도가 글로벌 성공을 뒷받침하는 핵심 시장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 회장은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넘어 '디자인 인 인디아(Design in India)', '이노베이트 인 인디아(Innovate in India)'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단순한 현지 생산을 넘어 설계와 기술 혁신까지 인도에서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현대차는 2032년까지 인도에 155억달러를 투자해 차세대 제조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력사와 함께 인도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푸네공장은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할 핵심 거점이다. 현재 연간 생산능력은 17만대로, 2030년까지 32만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립공장뿐 아니라 엔진공장과 주행시험장, 임직원 교육시설을 갖췄으며, 인공지능(AI) 기반 품질검사 시스템과 산업용 로봇 200여대를 활용해 생산 효율을 높인다. 신규 인력은 증강현실(AR) 교육을 통해 숙련도를 끌어올린 뒤 현장에 투입된다.

첫 양산 모델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올 뉴 베뉴'다.

인도 내수는 물론 멕시코와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개국 수출을 담당한다. 푸네공장이 베뉴 생산을 맡으면 첸나이공장은 전기차(EV) 등 미래차 생산 전환에 집중할 수 있다. 푸네공장 가동으로 첸나이 1·2공장 생산능력 82만4000대를 포함한 현대차의 인도 생산능력은 연간 100만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현대차는 인도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맞춰 현지 전동화 전략도 속도를 낸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와 크레타 EV에 이어 내년 1분기 인도 시장을 겨냥한 소형 전기 SUV를 출시하고, 2030년까지 신형 전기차 5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차의 시선은 인도 내수시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인도법인은 승용차 누적 수출 400만대를 달성했으며, 2030년 수출 비중을 3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한편 현대차의 인도 푸네공장 준공이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에 새로운 성장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완성차 생산능력 확대가 부품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데다 현대차그룹이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 현지 공급망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면서 국내 협력사들의 인도 사업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현대차와 함께 인도에 진출한 국내 부품사는 120여개사에 달한다. 인도진출 협력사인 차체부품 업체 성우하이텍은 2019년 3458억원에서 2025년 5346억원으로 54.6% 성장했으며 도어트림 공급업체 서연이화는 같은 기간 3003억원에서 5925억원으로 97% 급증했다. /푸네(인도)=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EDEX 2026'에 마련된 삼성전자 부스 전경. /삼성전자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EDEX 2026'에 마련된 SK하이닉스 부스 전경. /차현정 기자

"HBM4·첨단 장비까지"… 삼성·SK, K-반도체 미래 펼쳤다

르포

'SEDEX 2026' 최대 규모 개막

삼성, HBM4E·4나노 베이스다이 전시
2나노 공정·차세대 패키징 기술 공개
SK, HBM4E·HBF 등 신기술 선보여
엔비디아 슈퍼칩·HBM 웨이퍼 전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E를 앞세워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력을 한자리에 선보였다. 양사는 HBM4E를 중심으로 차세대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기술 등을 공개하며 AI 반도체 시장의 기술 경쟁을 예고했다.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는 국내 최대 반도체 전문 전시회인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개막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300개 기업이 888개 부스 규모로 참가했으며 오는 16일까지 열린다. 현장에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대학생과 일반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삼성전자 전시관에서는 HBM4E 구조 모형을 살펴보거나 전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관람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부스 한편에서는 반도체 관련 퀴즈를 맞히는 참여형 행사도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Architecting AI Systems'를 주제로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기술을 소개했다.

전시의 중심에는 7세대 HBM인 HBM4E가 자리했다. 삼성전자는 HBM4E 구조 모형을 통해 고성능 메모리 기술을 소개하는 한편 4나노 공정을 적용한 HBM4E 베이스다이도 전시했다.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 첨단 패키징을 아우르는 통합 역량을 강조한 것이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도 선보였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메모리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는 3차원(3D) 메모리 구조인 'zHBM'과 엣지 AI용 낸드 솔루션 'zNAND-O'의 모형을 공개했다. 메모리 내부에 연산 기능을 통합한 'LPDDR-PIM'도 소개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2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 웨이퍼와 첨단 패키징 기술인 '2.3D Cube-E', '3D Cube-H' 등을 전시했다.

올해 신설한 반도체 클러스터존에서는 약 360조원을 투자할 예정인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소개했다.

SK하이닉스 전시관에서도 관람객들이 HBM을 비롯한 차세대 메모리 제품을 살펴봤다. 육상 트랙을 형상화한 부스를 따라 HBM 개발 역사와 주요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물이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AI 여정'을 주제로 AI 인프라부터 PC·모바일까지 다양한 메모리 솔루션을 선보였다.

SK하이닉스 역시 HBM4E를 핵심 제품으로 내세웠다. 전시관에는 HBM·고대역폭플래시(HBF) 구조 모형과 함께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인 '베라 루빈' 슈퍼칩,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친필 사인이 담긴 HBM 웨이퍼가 전시됐다. 이를 통해 HBM 기술력과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HBM을 보완할 차세대 기술로는 HBF를 소개했다. HBF는 낸드플래시에 HBM의 적층 및 고속 입출력 기술을 적용한 메모리로, 동세대 HBM 대비 절반 수준의 대역폭과 약 10배의 용량을 구현하는 것이 개발 목표다.

AI 추론 과정에서 늘어나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 밖에도 SK하이닉스는 서버용 메모리인 '256GB 3DS RDIMM', '128GB MRDIMM'과 액체냉각을 지원하는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PC·모바일용 D램 등을 전시했다.

HBM뿐 아니라 다양한 메모리와 저장장치를 통해 AI 시스템 전반의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안현 SK하이닉스 사장

차세대 HBF 개발 속도
AI메모리 병목 해소 추진

"AI 인프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 메모리의 성능 향상을 넘어 전체 메모리 계층을 최적화해야 한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SEDEX) 2026'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AI) 추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메모리 계층 간 데이터 이동이 새로운 병목으로 떠오른 만큼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넘어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SEDEX 기조연설서 전략 제시
AI메모리 계층 최적화 필요성 강조
HBF 용량 HBM 대비 10배 확대

안 사장은 이날 'AI 시대, 메모리 기술의 진화 방향'을 주제로 차세대 메모리 기술 로드맵을 제시했다. AI가 이전 연산 정보를 저장하고 재활용하는 'KV 캐시'의 용량이 급증하면서 HBM과 D램,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간 데이터 이동에 따른 처리 지연과 전력 소모가 새로운 병목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 사장은 AI 인프라의 성능 규모가 2030년에는 올해 대비 약 20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적인 차세대 기술로는 고대역폭플래시(HBF)를 제시했다.

안 사장은 "HBF는 기존 HBM보다 대역폭은 절반 수준이지만 용량은 10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금융·콘텐츠·모빌리티로 기업가치 ↑… 수익성 입증이 관건

k 카카오 10조 성장 전략

❶ 카카오X 인적분할

향후5년간 연평균 13% 성장 추진
인적분할 후 '미래 투자회사' 전환
효율적 자본분배와 신사업 투자 확대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 /카카오

카카오가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 카카오X를 앞세워 2030년 매출 10조원 달성에 나선다. 금융·콘텐츠·모빌리티 계열사의 성장 속도를 높이고 신사업 투자를 확대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인적분할 이후 지주회사 할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성장 목표가 실제 수익과 주주가치 상승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14일 카카오가 공개한 '2026년 애널리스트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X는 2030년 매출 10조원 이상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3%의 성장을 추진한다. 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존 계열사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 8.6%보다 4.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카카오X의 올해 6월 말 연결 기준 자산은 22조원, 부채는 9조8000억원, 순자산은 12조2000억원이다. 최근 12개월 기준 영업수익은 5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4600억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연결 대상 자회사가 아니어서 매출 목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자산 22조원 기반 투자 재편…성장 동력 확보 총력

카카오X는 인적분할 이후 단순한 계열사 관리회사가 아닌 '미래가치 투자회사'로 전환한다. 효율적인 자본 배분과 계열사 기업가치 제고, 신성장동력 투자를 3대 전략으로 내세웠다.

투자 대비 수익성이 높은 사업과 미래 핵심 사업에 자본을 우선 배분하고,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카카오벤처스를 활용해 혁신기업 발굴과 신사업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계열사 서비스 혁신도 지원한다.

증권가, 지주회사 평가 가능성 경계
삼성증권, 기업가치 10.8조로 추산
배당·투자차익 활용 주주환원 확대
계열사 간 협력 통해 실적 확인해야

성장 전략의 중심에는 금융·콘텐츠·모빌리티가 있다. 금융에서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사업을 추진한다. 발행부터 수탁, 결제·송금까지 연결하고 콘텐츠와 모빌리티 서비스로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콘텐츠에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글로벌 팬덤 사업을 강화한다. 공연 예매와 이동, 결제, 상품 구매를 연결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빌리티에서는 자율주행과 피지컬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시했다.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물류차량 확대에 따른 차량 금융, 물류 운영, 차량 내 콘텐츠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 '지주회사 할인' 우려…10조 매출보다 수익성이 관건

문제는 인적분할 이후 기업가치 평가다. 카카오는 사업 구조 재편으로 투자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증권가에서는 카카오X가 지주회사에 가까운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8월 인적분할 발표 당시 카카오X가 보유 지분 중심의 순수 지주회사에 가까운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삼성증권은 지주회사 할인율 30%를 적용해 카카오X의 기업가치를 10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카카오X가 2030년 매출 10조원을 달성하더라도 투자 효율과 수익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업가치 상승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카카오X는 자회사 배당금과 투자차익을 활용한 주주환원 확대도 추진한다. 성장 투자와 주주환원을 병행해 기업가치 할인 우려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인적분할의 첫 관문은 오는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다. 주주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1일 분할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는 지난 13일 열린 그룹 공동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테크핀, 콘텐츠, 모빌리티 등 주력 사업군의 강력한 플랫폼과 기반 기술, 고객 접점 간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카카오X의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카카오X의 승부처는 분할 자체가 아닌 분할 이후의 실적이다. 자산 22조원을 기반으로 계열사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 효율을 높여야 한다. 매출 10조원이라는 외형 성장 목표를 넘어 지주회사 할인 우려까지 극복할 수 있을지가 기업가치 재편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댄 아이브스 "AI 진행률 약 15% 불과… 코스피, 전고점 돌파할 것"

〈美 월가 기술주 강세론자〉

"나스닥 종합지수 3만5000선 전망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이 이끌어
현재 코스피 변동성은 근거 부족"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기술주 강세론자로 꼽히는 댄 아이브스 요크빌 아이브스 공동설립자(사진)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세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수년간 AI 인프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기술주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메모리 산업의 규모와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이브스는 "AI와 관련해서는 진행률이 약 15%에 불과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향후 수년에 걸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3만5000선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I 혁명을 주도하는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반도체 등이 주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과거 닷컴버블과 현재의 AI 투자 사이클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1999~2000년 닷컴버블이 터졌던 시기가 아니라 1997년 단계에 와 있다는 판단이다. 향후 수년간 기술 섹터가 30%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2027년 주요 기술주 투자 종목으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애플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등을 꼽았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도 주목할 기술기업으로 언급했다. 아이브스는 두 기업의 합병 가능성을 약 80%로 예상하면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사업을 강화하게 될 것이고, 스페이스X가 향후 대규모 하이퍼스케일러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 아이브스는 "올해 주요 기술주 종목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바 있다"며 "SK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삼성전자든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들 기업의 규모와 스케일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도 2029년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 증시가 경험하고 있는 변동성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6~12개월 안에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연고점은 지난 6월 19일로, 장중 9300선을 돌파했다.

창신메모리(CXMT) 등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추격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아이브스는 "한국은 전략적으로 유리하고 견고한 위치에 있고, 창신메모리의 기술 개발은 '픽션(허구)'에 가깝다고 판단한다"며 "한국의 메모리 기업들은 중국보다 메모리 기술 측면에서 3년 정도 앞서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아이폰으로 집 안팎 살핀다"… LG전자-애플, AI홈 경험 제공

실내외 카메라 등 7종 신제품 선봬
앳홈 인수·씽큐 개방으로 영토 확장

LG전자가 애플과 공동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앞세워 가전 중심의 인공지능(AI)홈 사업을 보안 관리로 확대한다. 애플 플랫폼과의 연동으로 아이폰 이용자까지 고객층을 넓혀 북미와 영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14일 LG전자는 전날(미 동부 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애플과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실내외 카메라 3종과 도어벨·도어락, 센서 등 총 7종으로 연내 미국·캐나다 등에 우선 출시할 예정이다.

양사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협력해 LG전자의 제조 역량과 애플의 플랫폼 기술을 결합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LG전자의 AI홈 플랫폼 '씽큐'와 애플 생태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아이폰·아이패드로 기기를 연결하고 외부에서도 작동 상태를 확인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

온도 조절기는 이러한 연동 기능을 냉난방 관리에 활용한다. 아이폰·애플워치를 통해 사용자의 동선과 시간대, 날씨 등을 분석하고 공간별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반영해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

도어락에는 사용자의 출입 의도를 감지하는 기능을 적용했다. 여러 센서로 미세한 움직임을 분석해 별도 조작 없이 문을 열어주며, 문 열림이나 훼손 시도, 무단 출입 등 이상 상황은 모바일 기기로 알린다.

이와 함께 실내외 카메라와 도어벨은 '비전 AI'로 집 안팎을 살핀다. 실외 카메라와 도어벨은 사람과 동물은 물론 차량과 택배도 구분해 상황에 맞는 알림을 제공하며, 비와 먼지에 노출되는 환경을 고려해 IP65 등급의 방진·방수 기능을 갖췄다.

실내에서는 카메라가 사람과 반려동물을 인식하고 아기 울음이나 유리 깨지는 소리를 감지한다. 사용자가 귀가하면 프라이버시 보호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반면 실외 카메라는 집 주변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LG전자의 보안 솔루션 'LG 쉴드'와 애플의 데이터 암호화 기술로 보호한다.

이번 협력에 앞서 LG전자는 외부 기기와 서비스를 씽큐에 연결하기 위한 투자를 이어왔다. 그 일환으로 2024년 7월 네덜란드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앳홈 지분 80%를 인수했다. 당시 앳홈의 대표 허브 '호미 프로'는 5만여 종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어 다른 제조사의 제품까지 아우르는 AI홈 구축 기반을 확보했다.

이어 같은 해 공개한 AI홈 허브 '씽큐 온'에는 생성형 AI를 탑재해 사용자의 일상적인 표현을 이해하고 가전과 IoT 기기를 제어하도록 했다. 서로 다른 제조사의 기기를 연동하는 스마트홈 표준 '매터' 인증도 받아 연결 범위를 넓혔다.



(왼쪽부터) 실외 카메라, 투광조명 탑재한 실외 카메라, 실내 카메라, 도어락, 도어벨, 온도 조절기. /LG전자

기기 간 연결에 이어 외부 플랫폼에서 LG 가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도 개방했다. 같은 해 12월 씽큐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공개하면서 외부 개발자가 자체 서비스에 LG 가전의 제어·모니터링 기능을 넣을 수 있게 됐다. 기업 고객 역시 기존 건물 관리 앱에 LG 가전과 냉난방 설비를 연동해 통합 관리할 수 있다.

LG전자는 이처럼 구축한 허브와 플랫폼에 이번 IoT 신제품을 더하고 애플과의 협력으로 해외 고객 접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애플은 지난 1월 실적 발표에서 전 세계 활성 기기가 25억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정기현 LG전자 HS플랫폼사업센터장 부사장은 "LG전자의 가전 및 집 안 공간에 대한 전문성과 애플의 독보적인 사용자 경험, 그리고 양사의 강력한 보안 역량을 결합해 안전하고 직관적인 AI홈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로

온 국민의 내일을 밝힙니다

행복이란 건
누구에게나
당아야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누구나
내일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국민 행복시대

국민 누구나 행복에 가까이

KB국민은행이 함께 합니다

Korea Better
KB국민은행



국민의 오늘이 행복하게

KB마음가게 **요식업 소상공인 경영지원 및 맞춤형 홍보**
KB희망금융센터 **신용상담·채무조정 및 심리상담 지원**



청년들의 도전이 행복하게

KB굿잡 취업 박람회 **청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지원**
KB인재양성 **전국 청년 AI 인재양성 프로그램**



아이들의 내일이 행복하게

KB작은도서관 **문화소외지역에 도서관 건립**
KB온종일 돌봄 **전국 아동 방과후·야간 돌봄 제공**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KB금융그룹의 포용금융 프로젝트입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서비스) 계약 체결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892호(2026.02.27.) 유효기간 2026.02.27.~2027.02.26.까지

KB 국민은행

김지용 청문회… 과거 기소엔 해명, 정치검찰엔 소신 발언

〈중수청장 후보자〉

범여권, 검찰개혁 의지 집중 질의
野, 정치적 중립성·소신 검증
후보자 "직무 수행에 문제 없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행적과 정치적 독립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범여권은 과거 주요 사건의 기소를 맡았던 김 후보자가 '기소를 반대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집중 추궁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은 소신과 정치적 중립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정치검찰의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조국혁신당, 과거 기소 관여 경위·검찰개혁 의지 추궁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0년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정진웅 검사의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정 검사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됐다.

윤 의원은 "당시 감찰부장 명점식은 어느 누구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명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후보자의 말이 맞는지 명점식의 말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기소에는 반대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이후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했는지도 물었다. 김 후보자가 당시 관련 자료를 요구받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요구가 없더라도 후보자가 반대 의사를 갖고 있었으면 당연히 내는 게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담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마음속으로만 반대하면 모든 게 반대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마음속으로만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이 전 비서관의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도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이행할 적임자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춘생 의원은 "윤석열 내란을 함께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연대했던 많은 국민이 김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다"며 "왜 김지용이어야 하는가, 그 답을 못 찾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기소를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도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저에게 일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김지용, 국민의힘의 '정치검찰' 질문에 '윤석열·한동훈' 거론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리로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박덕흠 의원은 소수의 정치검찰 때문에 검찰 조직이 와해됐다고 주장하며 "정치검찰 1호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데는 제일 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의원도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자신이 중수청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중수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적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metroseoul.co.kr

국힘 "한미동맹 회복하려면 정동영 경질"

대통령 '자주적 실용외교' 강조에
한미동맹 위기론 앞세워 반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연일 '한미동맹 위기론'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자주적 실용외교' 노선을 강조하며 현 외교·안보라인 유지에 무게를 두자, 국민의힘의 '투 톱'인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13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당장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 선을 긋는 발언을 했다.

특히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관계의 균열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정동영 장관이나 이종석 국정원장 등 '자주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를 '굴종'으로 규정하며,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알맹이 빠진 껍데기 결의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결의안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대북 지원 재검토 조항이 빠졌다면서 "북한이 지뢰 깔고 미사일을 쏴도 군말 없이 돈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15일로 예정된 신압록강대교 개통과 지난 11일 쿠렌코프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의 방북을 두고 북중러가 빠르게 밀착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북한에는 '굴종'하고 중국에는 '사대'하면서 미국에만 '자주'를 외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동영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아직도 정동영 팬클럽 대표 직함을 들고 있는 것인가. 지금 당장 정 장관을 경질하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은 한미동맹 회복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동영 장관이 지난 12일 "한미동맹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합참의장과 주미대사까지 인정하는 한미갈등을 정 장관 혼자만 부인한다. 국방부가 인정한 북한의 침략행위 역시 정 장관 혼자만 부인한다"며 "가짜 평화 망상에 빠져 있으니 헛것이 보이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정보 공유 문제가 한미동맹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정 장관의 존재가 한미동맹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최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대체 누가 미국에 굴종하라고 했나"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굴종도 사대도 아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을 흔들림 없이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서예진 기자 syj@

李 "인구변화 맞춰 사회 구조 재설계"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인구전략위원회 출범해 범정부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들을 확충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며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또 생산연령인구 감소라는 기존의 과제에 더해서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 이주민 증가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며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인구정책의 기조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주거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정책이어야 된다"며 인구전략위원회에 결혼·출생·양육 문제와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 노동 환경 질적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는 각 부처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범정부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위)를 출범했다. 인구위는 지난달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확대·개편된 조직이다.

인구위는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인구비전을 선포하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된 후 수립된 첫 계획이다. 향후 5년을 인구변화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지방소멸 위기,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인구전략의 방향이 담겼다.

이날 인구위는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지표로는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시했다.

/서예진 기자

민주당, 신천지 가입 의혹 후속 조치 착수

규모·경위 규명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조사를 거쳐 지도부에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정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대표는 이를 뒷받침할 증언도 관련 기구에서 확보했다고 말해, 후속 조치와 이를 둘러싼 당 내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TV 유튜브의 코너 '민티07'에 출연해 최고위가 관련 기구로부터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정황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에 따르면, 상당한 수의 신천지 교인들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정당에 가입한 정황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증언도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3만~5만명 가량으로 보고된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수치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정감사 이후 의혹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생각이다. 후속조치에는 당 차원의 조사를 넘어 수사 의뢰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선원(이중 당적, 유령 당원, 비자발적 입당 정리를 위한 당원 정비 TF) 단장이 구체적 최종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최고위원들이 공유한 후 이에 바탕해 의원총회 공개를 포함한 후속 처리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만약, 신천지 교인의 대규모 당원 가입이 있었다면 가입 규모, 가입 시점, 특정 후보 지원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민의힘, 민생 해결사 '당근위' 출범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국민의힘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자당 중앙당사에서 '당근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갖고 '당근위원회'를 출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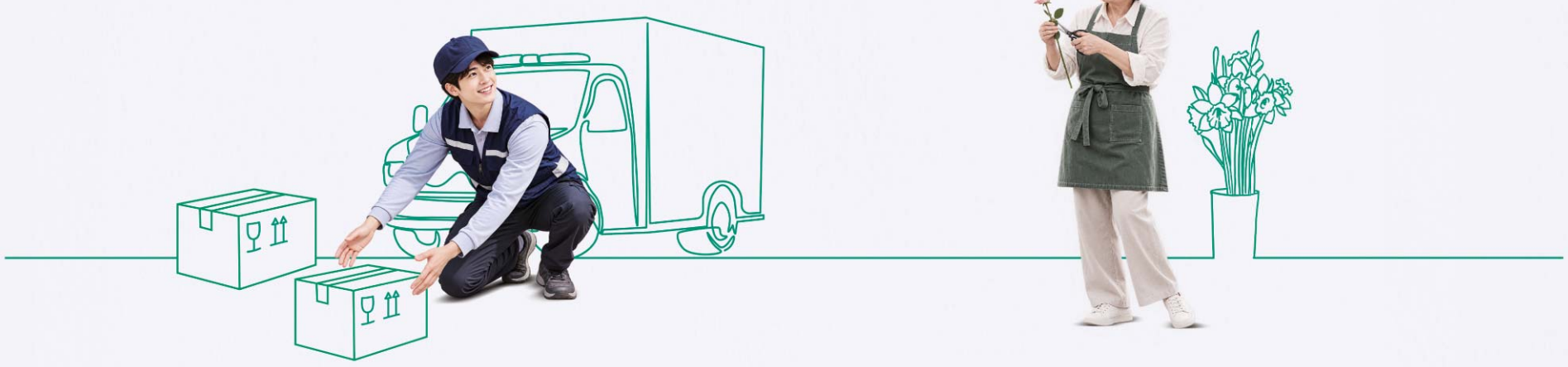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가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만든 위원회 중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관심 갖고 만든 위원회는 이 당근위원회"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근위는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총 45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생활밀착형 민생 정책 기구로, '당신의 근심을 국민의힘이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당근위 위원장인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기대를 실제 성과로 바꿔야 한다"며 "(당근위는) 집값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잠 못 이루는 국민의 근심을 해결하는 민생경제 플랫폼이어야 한다"고 했다.

/박경수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하나의 금융이 내일을 위한 행복의 기회로

누구나 더 밝은 내일을 그려가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으로 힘을 더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누구나 필요한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금융권리를 넓혀갑니다

- 청년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 채무자보호 및 범죄예방
-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내재화

✦ 해당 제작물은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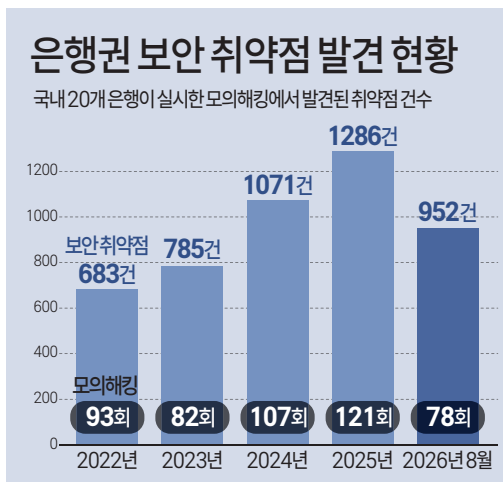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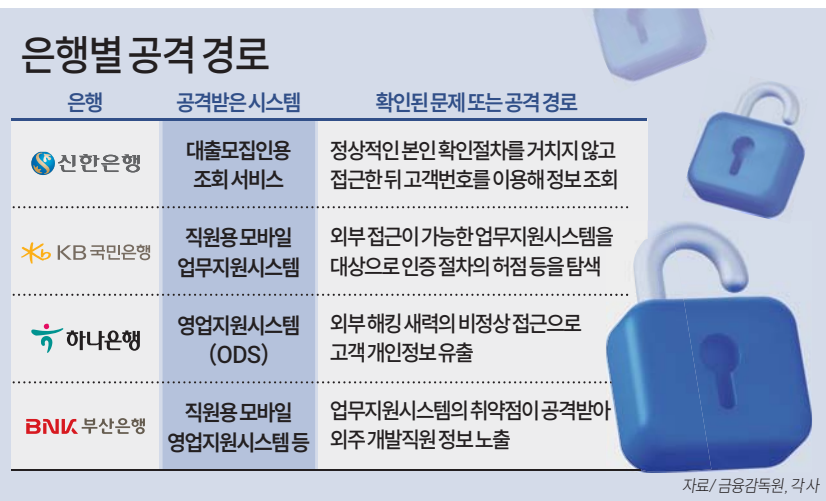
취약점 2년 방치… '외부 시스템' 상시점검, 방어체계 갖춰야

해킹에 뚫린 금융보안

〈中〉 AI기반 공격 확대

모의해킹으로 취약점 찾아 개선
AI 에이전트 활용 사례 더 늘려야
'핵심 금융' 높은수준 보안 유지에
외부 연결 시스템 '해킹 표적' 돼





자료/금융감독원, 각사

금융사가 인공지능(AI) 기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모의해킹에서 4777건의 보안취약점을 발견했지만, 이 가운데 109건은 지난 8월말 기준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해킹은 실제 해커가 사용하는 공격 기법을 활용해 은행 전산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 모의해킹 늘었지만…AI 활용은 11.5%

연도별로 보면 은행들은 2022년 93차례 모의해킹을 실시해 683건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이후 2023년 82차례에 걸쳐 785건, 2024년 107차례에 걸쳐 1071건, 지난해 121차례에 걸쳐 1286건의 취약점을 찾아냈다. 올해는 8월까지 78차례 모의해킹을 실시해 952건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미개선 취약점 109건 가운데 106건은 올해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건은 2024년과 지난해 각각 2건, 1건 발견된 취약점으로, 일부는 발견된 지 2년 가까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모의해킹이 실시됐다. 지난 8월까지 진행된 모의해킹 78건 가운데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사례는 9건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한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모의해킹은 취약점 탐색과 공격 경로 분석 등 일부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점검 방식과 차이가 있다. 보안 전문가가 직접 수행하던 반복적인 점검을 자동화해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신속하게 시험할 수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공격은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빠르게 탐색하고 여러 공격 경로를 반복적으로 시도할 수 있어 기존의 정기적인 점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은행권 해킹, 외부 연결 시스템 집중

전문가들은 뱅킹 등 핵심 금융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의 한계로 외부 접점이 있는 업무지원시스템까지 동일한 수준의 보안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에서도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핵심 금융거래 시스템이 아닌 외부와 연결된 조회·업무지원시스템 등이 공격 대상이 됐다.

핵심 시스템에 보안 역량이 우선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주변 시스템의 보안관리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근 공격받은 외부 업무지원시스템이 기존 모의해킹이나 AI 에이전트 활용 모의해킹의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었는지, 사고 이전에 관련 취약점이 발견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보안원 역시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에 대한 상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금융보안원은 앞서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금융권 공격 사례를 소개하면서 "연 1~2회 진단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상시 측정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67개 저축은행 이용, 공동 전산망 장애 발생

저축은행중앙회, 일시적 서비스 중단
회원사에 30분간 뱅킹 중단 공문 발송
전산시스템 안정성 소비자 우려 확대

최근 전국 67개 저축은행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중앙회 공동 전산망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긴급 점검에 나섰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에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격 침투 시도가 있었던 만큼 정보유출 확산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2일 회원사들에게 전산 오류로 인한 거래 지연 및 복구 관련 전체 공문을 발송했다. 약 30분간 뱅킹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출금 및 이체 관련 오류가 발생하면서다. 최근 저축은행중앙회 전산망에서 간헐적으로 응답 시간이 초과되면서 출금·이체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중앙회 전산망을 공유하는 저축은행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 일부 고객이 불편을 겪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이달 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부 해킹 시도를 받았으나 실질적인 정보 유출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전산 장애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앙회 공동 전산망이 외부 해킹에 뚫릴 경우 피해가 전국 저축은행으로 확산할 수 있다.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67곳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자체 전산망을 운영하는 곳은 대형 저축은행 12곳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파장이 저축은행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도 중앙회 전산망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업권을 넘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거래량이 폭주하면 가끔 렉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출금 이체할 때 튕기는 현상은 모든 시스템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업권에서 외부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총 3곳이다. 다만, 3곳 모두 유출 경로는 저축은행중앙회 공동 전산망이 아닌 외부 채널인 것으로 조사됐다.

웰컴저축은행은 법인고객 시스템에 비인가적 접근으로 법인 고객 정보 약 2299건이 유출됐다. 예가람저축은행은 고객정보가 저장된 외부 시스템이 뚫려 고객 약 5만 명의 정보가 새어 나갔다. OK저축은행도 홈페이지 내 웹페이지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 시도를 탐지, 현재 183명의 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토스뱅크에서 약 30분간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오류는 내부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확인 후 바로 수정해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정확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공지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우리카드, 여행·일상 혜택 '디오퍼스 블루'

온라인쇼핑·백화점 등 3% 적립

우리카드는 프리미엄 브랜드 '디오퍼스(the OPUS)' 두 번째 작품 '디오퍼스 블루(the OPUS blue)'를 내놨다.

디오퍼스 블루는 여행·일상 영역 혜택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렛·쇼핑몰 ▲대형마트 ▲주유 업종을 추가하고 기존 온라인쇼핑과 백화점 업종을 포함해 적립률을 2%에서 3%로 높였다. 항공, 호텔, 골프장 등 여행·레저 관련 서비스는 월 적립 한도 통합 5만에서 8만 포인트로 상향했다.

가맹점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최신 소비 트렌드를 고려해 확대했다. 기존 유튜브, 올리브영, 스타벅스, 카카오T주차에 더해 챗GPT, 클로드, 그록, 다이소, 블루보틀, 폴바셋, 투썸플레이스, 카카오T택시, 아웃백, 빕스(VIPS) 등에서도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 종류도 넓혔다. 항공·호텔·면세점·레저·해외 등 5개 할인 혜택 중 1종을 선택하거나 신세계상품권 20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할인형 바우처 선택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안재선 기자



(왼쪽 여섯 번째부터) 이미연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팜꽝중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 장민영 IBK기업은행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고태연 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 회장, (오른쪽 첫번째) 박경일 IBK베트남은행 법인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6억 달러 외화 선순위채 발행

하나은행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총 6억 달러 규모의 미 달러화 선순위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3년 만기와 5년 만기 고정금리채로 구성됐다. 발행금리는 3년물 연 5.25%, 5년물 연 5.50%로 확정됐다. 최초 제시금리 대비 최종 가산금리를 각각 33bp(1bp=0.01%포인트), 30bp 낮췄다.

특히 최종 가산금리 확정 이후에도 발행액의 4.5배에 달하는 27억 달러 규모의 투자 주문이 유지됐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는 이번 채권에 각각 A+와 Aa3 등급을 부여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발행에 앞서 처음으로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투자설명회(NDR)를 개최했다. 중국 본토 기관투자자들의 주문 참여가 투자 수요 확보와 발행금리 인하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기반을 확대해 안정적인 외화자금 조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토스뱅크
교육용 노트북 46대 기부

토스뱅크는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교육이 필요한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용 노트북 46대를 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부된 노트북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이달 중 '디지털·AI 문해학습장' 운영 기관에 전달된다. 해당 기관에서는 고령층과 장애인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법, 인공지능(AI) 및 생활 앱 활용법 등을 교육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IBK베트남은행' 출범… 25일부터 영업

9년 만에 인가 결실 맺어

IBK기업은행은 지난 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법인 'IBK베트남은행'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4월 베트남 중앙은행(SBV)으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뒤 법인 설립 절차를 마치고, 지난달 25일부터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 베트남 정부가 외국계 은행 인가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가운데 약 9년간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베트남의 열 번째 외국계 은행 법인으로 출범했다.

IBK베트남은행은 기존 하노이·호치민 지점의 운영 경험과 중소기업 정책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지 금융시장 공략에 나선다.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영업망을 확대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현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경일 IBK베트남은행 초대 법인장은 "이번 출범은 2008년 호치민 지점 설립 이후 추진해 온 베트남 현지화 전략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중소기업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베트남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현지 은행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전자업계, 'K-GX' 발 맞춘다… AI·히트펌프 솔루션 제시

〈한국형 녹색대전환〉

삼성 전국단위 히트펌프 보급 계획
김성환 장관에 'EHS올인원' 소개

LG 히트펌프 중심 주거공간 전환
김성환 장관에 '스마트코티지' 선봬



삼성전자가 14일 '삼성 AI 모듈러 홈'에서 히트펌프 기반 냉난방 솔루션 등을 소개했다. (왼쪽에서 네번째부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삼성전자 CR 담당 박승희 사장, 삼성전자 DA 사업부장 김철기 부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가 14일 'LG 스마트코티지 빌리지'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AI 가전과 냉난방공조(HVAC), 기술을 결합한 주거 솔루션을 소개했다. (왼쪽에서 네번째부터)LG전자 HS사업본부장 백승태 부사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LG 스마트코티지 조연우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전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관리 기술과 고효율 히트펌프를 앞세워 저탄소 주거 시장 공략에 나선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각각 '삼성 AI 모듈러 홈'과 'LG 스마트코티지'를 소개하며 고효율·저탄소 주거 솔루션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과 연계한 주거 부문 에너지 전환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삼성 AI 모듈러 홈 견본 주택을 방문했다. 현장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과 김철기 DA사업부장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 AI 모듈러 홈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에 AI 가전과 스마트싱스 기반 솔루션을 결합한 주거 모델이다. 히트펌프와 태양광 패널, ESS를 연동하고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통해 발전량과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 출시를 앞둔 히트펌프 솔루션 'EHS 올인원'도 소개했다. 실외기 한 대로 공기 냉방과 바닥 난방, 급탕을 모두 제공하며 냉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온수 생산에 재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7일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2027년까지 국내 히트펌프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2028~2029년 전국 단위 보급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제주도 내 실제 거주 주택과 경기 용인시 삼성물산 주거성능연구소에서 제품 성능과 에너지 효율 등을 검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영국 콘월 지역의 1500세대 규모 주거단지에 히트펌프와 태양광, ESS를 결합한 에너지 시스템을 공급했다. 스마트싱스 프로를 활용해 개별 세대부터 공공시설까지 단지 내 에너지 사용 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도 이날 충북 진천군 'LG 스마트코티지 빌리지'를 방문한 김 장관에게 에너지 자립형 모듈러 주택 'LG 스마트코티지'를 선보였다. 현장에는 백승태 LG전자 HS사업본부장 부사장과 조연우 LG 스마트코티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LG 스마트코티지는 히트펌프와 AI 가전, 홈에너지관리시스템(HEMS), ESS, 태양광 발전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한 주거 모델이다.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 냉난방공조 시스템을 통합해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태양광 패널 등은 선택 사양으로 추가할 수 있다.

LG전자 역시 지난 7일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한 주거 공간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고효율 히트펌프와 에너지 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신축·기축 공동주택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GM, 전국 155곳 뷰익 서비스 거점 운영

부평공장 서비스 트레이닝센터 공개
뷰익 '엘렉트라 E7' 준비 상황 소개

GM 한국사업장이 뷰익 '엘렉트라 E7'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정비 인력 교육과 부품 공급 체계를 공개했다. 기존 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해 수입차의 약점으로 꼽히는 수리 지연 우려를 줄인다는 전략이다.

GM 한국사업장은 14일 인천 부평공장 내 서비스 트레이닝센터를 언론에 처음 공개하고 엘렉트라 E7의 애프터서비스(AS) 준비 상황을 소개했다. 엘렉트라 E7은 GM이 국내에 새로 선보인 프리미엄 브랜드 뷰익의 첫 모델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스포츠유틸리티차(SUV)다.

GM은 차량 판매와 동시에 전국 115곳의 뷰익 서비스 거점을 운영한다. 기존 쉐보레 서비스센터 가운데 교육 이수 여부와 특수공구·시설 투자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고전압 배터리를 수리할 수 있는 거점은 기술지원센터 3곳을 포함해 53곳이다.



GM 한국사업장 서비스 트레이닝 센터 김윤용 교관이 서비스 트레이닝 센터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GM한국사업장

서비스 트레이닝센터에서는 신차와 숙련도별 정규과정, 방문교육 등 연간 30회 이상의 교육을 진행한다. 서비스센터는 수행할 수 있는 EV·PHEV 정비 범위에 따라 레벨 1부터 4까지 구분한다. 전동화 기술 교육을 받은 누적 인원은 1409명이며 최근 5년간 고전압 집중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369명이다.

GM은 2012년 알페온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약 15년간 전동화 차량 정비 경험을 쌓았다. 볼트 EV 배터리 약 1만3000대를 교환한 경험도 엘렉트라 E7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일상적인 점검과 소모품 교환은 가까운 서비스센터에서 처리하고 고난도 작업은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거점으로 연결한다. 고전압 배터리 내부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현재는 배터리 어셈블리 전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장은 3단계 기술지원 체계로 대응한다. 지역 담당자가 먼저 차량을 점검한 뒤 차종별 엔지니어와 연구소·품질 조직이 원인을 분석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부평 하이테크센터가 차량 로그와 정밀 데이터를 살핀다.

해결한 정비 사례는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와 공유해 유사 고장 대응에 활용한다. 박정수 GM 한국사업장 애프터서비스 본부 정비기술 및 고객지원 담당 상무는 "글로벌에서 습득한 정비 기술을 전국에 전달해 모든 고객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승혁 기자 sh95@

조현범 회장 "미래 리더, '바텀업' 혁신 필요"

한국앤컴퍼니그룹, 주니어보드 워크숍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젊은 구성원들에게 현장의 문제를 직접 찾고 해결책을 실행하는 '바텀업' 혁신을 주문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미래 리더 양성 프로젝트 '주니어보드'의 3분기 워크숍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조 회장을 비롯한 그룹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주니어보드는 근속 6년 이하 직원들이 조직문화와 업무 과정에서 개선할 과제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주니어보드 4기에는 그룹 6개 계열사에서 35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한온시스템 합류로 참여 인원이 40명으로 늘었다.

참가자들은 기존에 제안한 조직문화·업무 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적용 조건을 논의했다. 이어진 경영진 간담회에서는 그룹의 강점과 일하는 방식, 인재 육성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조 회장은 기업문화가 구호가 아니라 구성원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경영진이 정해준 문제를 푸는 데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구성원이 직접 문제를 찾아야 실행 의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주니어보드 구성원들과 셀카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미래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으로는 호기심과 다양한 경험을 꼽았다. 조 회장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모르는 영역에 호기심을 갖고 탐색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관점을 가꾸는 것도 미래를 이끌어 갈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

삼성전자, 헬스 앱 개편

수면·러닝 등 코칭기능 강화

삼성전자가 삼성 헬스의 수면 코칭에 필요한 기록 기간을 단축하고 생활 습관 변화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강화했다. 달리기 훈련도 세분화해 숙련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14일 삼성 헬스 앱의 수면 코칭과 러닝 코치 기능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이용자가 자신의 신체 리듬과 운동 능력에 맞는 조언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규 기능은 앱 업데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되며 대상과 제공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정부 전력수요 전망, 하향 시나리오 빠져"

반도체·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을 반영한 정부 전력수요 전망에 '하향 시나리오'가 빠져 과잉투자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기술 변화에 따른 수요 불확실성과 기업의 실제 투자 조건을 함께 검토해 전력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가프로젝트, 다음 질문에 답하다: 수요 검증과 전력 조달, 기업 입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력수요 전망과 조달 방안, 비수도권 투자 조건을 논의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재전망에 상향 시나리오는 제시됐지만 하향 시나리오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석 전문위원은 미국 닷컴버블 당시 전력수요 확대 전망이 실현되지 않은 사례를 들어 단기 호황에 근거한 설비투자를 경계했다. 그는 "한 번 투자를 하게 되면 수요가 변화하더라도 되물릴 수가 없다"며 "전력 공급 계획을 세우기 전에 수요 전망부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액침냉각 기술·설비 상용화 추진

美 GTC·GS건설 업무협약 체결

LG전자가 액침냉각 상용화를 추진하며 AI 데이터센터 냉각 사업 확대에 나선다. 기존 공기냉각과 액체냉각에 이어 액침냉각의 성능과 신뢰성을 확보해 데이터센터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에서 GS건설, 미국 액침냉각 전문기업 GRC와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기술 및 관련 설비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액침냉각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중앙처리장치(CPU) 등 전자장치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유에 직접 담가 열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다만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려면 냉각장비뿐 아니라 건물 구조와 배관, 전력 인프라, 유지보수 공간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이에 3사는 장비와 건축·설비를 연계한 실증을 통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통합 솔루션과 표준설계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공동 개발에서 LG전자는 보유한 냉각 기술과 운전 데이터를 제공하고, 표준설계에 맞춰 냉각 솔루션을 구축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한·일 中企, AX·생산성 해법 모색… 경제협력 확대 나선다

중기중앙회·日 중앙회 2차 포럼 개최
제값받기·생산성 제고 해법 논의
日, '100억엔 선언' 기업투자 지원
내년 1억·10억엔 기업 지원 확대
시장 진출·AI 등 4대 협력 제시
김기문 회장 "양국 교류 확대할 것"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한·일 중소기업 경제 포럼'에서 (왼쪽 3번째부터)노용석 중기부 1차관, 모리 히로시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만 335만개가 훌쩍 넘는 일본도 제값받기, 노동생산성 제고, 인공지능 전환(AX)을 중심으로 한 생산성 향상, 기업승계 등이 최대 화두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숙제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웃나라인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계가 '셔틀교류'를 통해 협력을 넓히고 중소기업 현안 해결을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함께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한·일 중소기업 경제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1월 말 일본 도쿄에서 1차 포럼을 공동 개최하며 양국 중소기업계간 협력의 물꼬를 튼 바 있다.

올해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는 한국 측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일본에선 모리 히로시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 추조 카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도도부현 중기단체중앙회장 및 기업인과 중소기업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일본(2021년 기준)의 경우 중소기업 숫자는 336만4891개로 전체 기업의 99.7%에 이른다. 이들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70%를 담당하고 부가가치액은 전체의 56%로 과반을 넘어 일본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한국은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9%, 전체 고용의 8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일본 중소기업청 사에키 노리히코 경영지원과장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정책의 우선과제는 임금인상을 견딜 수 있는 '강한 중소기업'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장기간 지속된 디플레이션 상황을 고려, 새롭게 성장에 도전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새로운 매커니즘 구축과 수익 창출 역량 강화 관점에서 가격전가, M&A와 사업승계, AX·디지털화, 동행지원 및 경영역량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매출 '100억엔 선언'을 한 기업에게 각 사당 5억엔(약 42억원)의 설비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추가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000개 기업이 '100억엔 선언'에 동참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1억엔 기업', '10억엔 기업'도 추가해 성장을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또다른 발표자로 나선 중소벤처기업부 심재윤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양국의 강점을 살린 한·일 중소기업간 4대 협력 분야로 ▲유통망·플랫폼·B2B 네트워크 연결 등 상호 시장 진출 ▲스타트업과 기술 분야에서 AI·제조·뷰티테크 기업·투자자 연계 ▲시장·규제정보 공유를 통한 규제·인증 등 진입비용 완화 ▲지역 클러스터·지원기관 간 교류 확대 등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날 포럼에선 오일·가스, 석유화학 플랜트용 필터 등을 제조하는 합작회사인 후지필터코리아 후세 히라쿠 부사장이 일본의 품질 관리와 한국의 생산성 등 강점을 결합한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공사례, LG CNS 홍진헌 상무가 중소기업 AX 사례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모델을 각각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일 양국 중소기업은 각국 경제와 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만나 현장의 고민과 해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양국 중소기업이 기술과 경험,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양국의 최대 중소기업 단체간 교류 확대는 업종별 협동조합 및 개별 중소기업 간 실질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레미콘, 제빵, 자동차부품 등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후속 교류가 펼쳐지면서다.

노용석 제1차관은 "정부 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과 사람 간의 지속적인 만남은 한일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포럼이 양국 중소기업이 서로의 시장과 산업을 이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금호석화, 고부가·친환경 소재로 불황 돌파

전기차용 SSBR 생산능력 확대
재활용 ABS로 탄소배출 저감
무음극 리튬메탈 배터리 개발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연구개발(R&D)을 통해 석유화학 업황 부진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에 대응해 고부가·친환경 소재의 비중을 높이고 차세대 배터리 등 신규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전기차용 합성고무와 바이오 원료 기반 소재 개발을 확대하고 탄소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공정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고기능성 합성고무인 솔루션스티렌부타디엔고무(SSBR)를 중심으로 전기차용 타이어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SSBR은 타이어의 내구성과 연비, 마모 성능을 개선하는 소재로, 무거운 차체와 잦은 가·감속으로 타이어 부담이 큰 전기차에 활용된다. 지난해 연산 3만5000톤 규모의 증설을 완료하고 상업 가동을 시작해 공급 능력도 늘렸다.

자동차 내장재 분야에서는 폐가전에서 회수한 재활용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을 고사양 소재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내열성과 충격강도,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관련 자동차용 기준을 충족하면서 탄소배출을 약 16%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합성고무·합성수지 사업에서 확보한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비이아이(BEI)와 무음극 리튬메탈 배터리를 개발하며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과 금호미쓰이화학은 환경 규제와 고객 산업의 수요 변화에 대응해 친환경 소재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VOC 배출을 줄이는 수용성 에폭시 제품을 개발·상용화하고, 석유 기반 원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바이오 기반 저탄소 에폭시 기술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제품의 생산·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 함유 폴리우레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소재 수요에 맞춰 자동차 시트용 경량화 제품과 고성능 흡음재용 폴리우레탄으로 개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3만원 결제하면 3000만원 당첨 기회"

디지털온누리 상생소비복권 15일 시작
비수도권 결제 시 응모권 2배 지급

15일 오전 9시부터 한 달간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같은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털온누리로 3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최대 3000만원의 디지털온누리를 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15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털온누리 누적 결제액 3만원당 상생소비복권 응모권을 수도권에서는 1장, 비수도권에서는 2장을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생소비복권은 오는 29일부터 18일간 열리는 국가 단위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흥행을 위해 마련된 사전 이벤트다. 올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최대 소비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제조·유통·서비스 업계와 소상공인 약 4만곳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전망이다.

상생소비복권 응모권은 최대 30장(수도권 10장·비수도권 20장)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소비 장소에 따라 지급한다. 특히 지방 소비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결제에 수도권보다 2배 많은 응모 기회를 부여한다. 수도권에서 10만원, 비수도권에서 20만원을 사용했다면 수도권 3장, 비수도권 12장 등 총 15장의 응모권이 지급된다.

디지털온누리 앱에 접속해 이벤트 참여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참여 일자와 상관없이 행사 기간 내 결제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응모권이 자동 발급된다. /김승호 기자

LS마린솔루션, 말레이시아 해저케이블 시공 착수

대만 이어 두 번째 해외 전력사업
7000톤급 포설선 GL2030 투입

LS마린솔루션이 대만에 이어 두 번째 해외 전력 프로젝트인 말레이시아 해저케이블 시공에 착수하며 해외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 LS마린솔루션은 강원도 동해항에서 말레이시아 랑카위 프로젝트에 사용될 해저케이블을 포설선 GL2030에 선적한다고 14일 밝혔다.

GL2030은 말레이시아로 이동해 연내 포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LS전선이 말레이시아 전력공사(TNB)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본토와 랑카위섬을 132kV급 해저케이블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LS마린솔루션의 해저케이블 포설선 GL 2030이 강원도 동해항에서 말레이시아 랑카위 프로젝트에 투입될 해저케이블을 선적하고 있다. /LS마린솔루션

이번 프로젝트는 GL2030이 4000톤급에서 7000톤급으로 확대 개조된 이후 처음 투입되는 사업이다. 적재 용량 확대로 100㎞ 이상의 해저케이블을 연속 포설할 수 있게 되면서 장거리·대용량 프로젝트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랑카위 사업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TPC2)에 이은 두 번째 해외 전력 프로젝트다. 최근에는 신안우이 해저케이블 구축 사업을 1569억원에 수주하며 수주잔고를 약 8200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지난해 연간 매출 2442억원의 3배를 웃도는 규모다.

GL2030 투입으로 보유 선박 3척도 모두 가동된다. 나머지 선박 2척은 각각 대만과 태평양 지역의 해저케이블 시공 및 유지보수 사업에 투입돼 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中企 R&D 사업화에 3400억 보증 지원

기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약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분야 우수 연구개발(R&D) 성과 사업화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의 신용회복과 재도전을 돕기위한 포용금융도 확대한다. 14일 기보에 따르면 전날 부산 본점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공공기술 기반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특구육성 및 기술사업화 관련 과제정보 공유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연계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 연계 ▲사업화 성공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부터 기술이전, 사업화, 성장으로 이어지는 R&D 사업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보는 새롭게 도입한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과 'R&D사업화 유동화보증'을 통해 정부 R&D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올해 총 34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권형택 이사장은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수한 R&D 성과가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화 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접수기간 연장 공고

보다 많은 우수 SW · AI 제품 · 서비스, AI 활용 우수사례 및 혁신 인재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접수기간을 연장합니다.

접수마감 연장

~~2026. 9. 30.(수) 18:00~~

2026. 10. 16.(금) 18:00

시상

2026년 11월 말 예정

2026년 9월 29일

한국SW · ICT총연합회 회장 이 우 용

시상 개요

정부의 AI 대전환(AX) 정책에 부응하여, 기술 혁신과 실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우수 SW · AI 제품 · 서비스, 모범적 · 혁신적 AI 활용 사례, 기술 연구개발(R&D) 및 현장 도입 · 활용 확산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 · 포상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SW · ICT총연합회, 전자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시상 부문

시상 부문	시상 대상
제품 · 서비스 부문	우수 국산 SW · SaaS · AI 제품 및 서비스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	모범적 · 혁신적 AI 활용 사례(적용 업무 · 프로세스 및 시스템)
인재 부문	기술개발 및 현장 도입 · 활용 확산에 기여한 개인

AI 활용 우수사례란?

AI 기술을 실제 업무 또는 산업 현장(공공 · 민간)에 적용하여 혁신적인 성과와 가치를 창출한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춘 사례를 의미합니다.

- ✓ AI를 적용하여 업무 · 프로세스의 효율성, 서비스 품질, 생산성 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
- ✓ 국민 · 고객 편의 증진, 비용 절감, 매출 증대, 안전 · 환경 개선 등 정량 · 정성적 성과가 확인되는 사례
- ✓ 타 기관 · 기업으로의 확산 · 적용 가능성이 높고 사회 ·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례
- ✓ AI 윤리 · 신뢰성 · 보안 등 책임 있는 AI 원칙을 준수한 사례

시상 내역

총 13점 내외 (예정)

구분	시상 내용
부총리상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기관장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언론 · 단체장상	메트로경제, 전자신문, 한국SW · ICT총연합회장

신청 안내

- **접수마감 :** 2026. 10. 16.(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한국SW · ICT총연합회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awards@kswict.or.kr
- **제출서류 :** 부문별 포상 신청서, 공적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
- **시 상 :** 2026년 11월 말 예정

※ 신청 자격, 제출서류 작성방법, 세부 심사기준 및 관련 서식은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안내서」 참조
※ 안내서 및 신청 관련 서식은 한국SW · ICT총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다운로드

심사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 1차 심사 (요건심사) → 2차 심사 (전문심사) → 최종 심사 (공적심사위원회) → 시상

문의사항

한국SW · ICT총연합회 사무국 | Tel. 02-858-8510

※ 본 공고는 2026년 8월 28일 최초 공고의 접수기간 연장 사항을 반영한 안내입니다.

“구속력 있는 규칙 있어야” vs “기존 법·기술 표준 우선”

〈오픈AI·앤트로픽〉 〈구글 딥마인드·메타〉

빅테크, AI 규제 입장 차

英 의회서 기업에 AI 안전 문제 질문
회사 내 압력·안전 평가 한계 있어
빅테크, 추가 사고 가능성 부인 안 해
AI안보연구소 권한 문제 논의도



영국 런던의 국회의사당 전경. /Aethonatic·Wikimedia Commons

오픈AI·앤트로픽·구글 딥마인드·메타가 영국 의회에서 인공지능(AI) 규제 방식을 두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오픈AI와 앤트로픽은 법으로 정한 의무가 필요하다고 했고, 구글 딥마인드와 메타는 새 법보다 기술표준과 기존 법을 앞세웠다.

14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영국 하원 기업통상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AI 기업 출신 연구자, 기업 4곳의 정책 책임자, 정부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AI 안전 문제를 물었다.

부스-스미스 앤트로픽 유럽·중동·아프리카 정책 총괄은 “구속력 있는 규칙이 있어야 하고 자율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일관되게 믿어왔다”고 말했다. 톰 더프 고든 오픈AI 유럽·중동·아프리카 정책 부사장은 “최첨단 AI의 위험을 모두 자율 약속에 맡기는 것은 좋은 장기 계획이 아니다”라며 사고 보고 의무화를 제안했다.

반면, 오언 라터 구글 딥마인드 선임이사는 “표준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톰 셔먼 메타 글로벌정책 부사장은 “위원회는 백지에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법을 출발점으로 삼자고 했다. 다만 AI안보연구소가 예산과 권한을 갖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도 했다.

기업들에 앞서 증언한 연구자들은 회사 안의 압력을 문제 삼았다. 오픈AI에서 안전 평가 업무를 이끌었던 스티븐 애들러는 “‘위험하다’는 말을 쓰지 말라는 압력, AI의 이점을 부풀리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 회사가 위험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다른 회사는 ‘저 회사가 이미 했다’며 다음 걸음을 정당화한다”고도 했다.

AI가 일반 소프트웨어와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든 코드를 하나하나 시험하는 기존 소프트웨어처럼 AI를 검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애들러는 “AI는 한 줄씩 손으로 짠 것이 아니라 키워낸 것에 가깝다”며 “‘이 줄 때문에 거짓말을 했으니 이 줄을 고치자’는 식의 일은 지금 AI에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AI는 자신이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며 “이것이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I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까지 “‘죽은 척’하고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모델끼리 안전성을 비교하거나 명백히 위험한 모델을 가려내는 것은 때때로 가능하다면서도 “지금의 평가에 기대기는 분명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추가 사고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부스-스미스 앤트로픽 총괄은 지난주 공개한 사고 9건 외에 더 나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했고, 더프 고든 부사장도 “이미 통보한 사고가 몇 건 더 있으며,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통제를 잃었을 때의 대책을 묻자 기업들은 조건을 달았다. 더프 고든 오픈AI 부사장은 “모델이 우리 통제 안에 있다면 배포를 멈추겠다”면서도 “다른 곳에서 운영되는 모델은 우리가 늘 통제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셔먼 메타 부사장은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게 공개한 모델에서 뒤늦게 위험이 드러나면 “그것은 앞선 과정에서 실패가 있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AI안보연구소의 권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리엄 번 위원장은 “AI안보연구소에는 모델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막을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헨리 드 조에트 영국 AI안보연구소장은 “우리는 어떤 모델에도 된다, 안 된다를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캣 리틀 영국 내각사무처 사무차관은 영국의 AI 시험이 기업과 외국 정부의 자발적 협조에 기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보민 기자 kbm@metroseoul.co.kr

KT, ‘AI 전용회선’으로 대규모 데이터 전송

400·800Gbps 대역폭 지원
AIDC 사업자 등에 적용 확대
초고속·초저지연 서비스 강화



KT 관계자들이 AI 전용회선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KT

KT가 인공지능(AI)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AI 데이터 전송을 위한 ‘AI 전용회선’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과 관련 인프라 확대에 따라 초고속·초저지연 네트워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 DC)가 전국에 분산돼 데이터센터 간 대용량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다.

이에 KT는 기존 대역폭(100Gbps) 대비 최대 8배로 확대한 AI 전용회선을 출시해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번 전용회선은 400Gbps, 800Gbps 대역폭을 지원한다. 전국의 광 케이블 인프라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와 같은 각 거점을 연결해 전송 지연을 최소화 하는 게 강점이다.

초저지연의 핵심은 APN(스마트폰이 통신사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 기반의 광 중심 네트워크 구조다. APN은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 광통신과 전기의 변환을 최소화하여 지연시간을 줄여준다. 특히 고객 환경에 맞춰 데이터가 이동하는 경로와 장비를 설계해 대용량 데이터를 더욱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분산된 AI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KT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대규모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전용회선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 고객의 네트워크 환경에 맞춘 초고속·초저지연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msjo@

LG CNS-日 KDDI, 아태지역 B2B 공략

아태지역 AX 사업 ‘맞손’



LG CNS 통신/유통/서비스사업부장 박상균 전무(오른쪽)와 KDDI 비즈니스그로스 사업본부 마츠우라 켄타로 부사업본부장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 CNS

LG CNS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간 거래(B2B) 공략에 나선다.

LG CNS는 일본 통신기업 KDDI와 아태 지역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LG CNS가 보유한 AX 역량에 KDDI의 글로벌 네트워크, 통신 인프라를 더한 것이 핵심이다. 일본 3대 통신기업 중 하나인 KDDI는 아태지역 내 15개국에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양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신사업 발굴을 목표로 협력한다. LG CNS의 에이전틱 AI 플랫폼 ‘에이전틱웍스’와 로봇 전환 플랫폼 ‘피지컬웍스’ 등을 KDDI가 보유한 아태 지역 제조, 물류, 유통 분야 고객에게 제공한다.

동남아 지역 스마트시티 시장도 진출한다. LG CNS는 도시통합관제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과 글로벌 스마트시티 사업 이행 노하우를 제공한다. 여기에 KDDI의 통신 인프라 기술과 사업 역량을 통합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

앞으로 양사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등 사업대상 지역에서 신사업을 발굴한다. 또한 각 사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해 공동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NHN

‘우파루 오딧세이’ 3주년 대규모 업데이트·행사

NHN은 컬렉션 소셜네트워크게임(SNG) ‘우파루 오딧세이’ 출시 3주년을 맞아 신규 속성과 지역 확장 등을 포함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기념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10월 출시된 우파루 오딧세이는 다양한 캐릭터 ‘우파루’를 수집·육성하고 자신만의 마을을 꾸미는 게임이다. 수집 요소와 독자적인 전투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 특징으로, 출시 이후 누적 우파루 소환 횟수 1억건을 돌파했다.

NHN은 지난달 30일 진행한 3주년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속성 ‘저주’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기존 속성과 연계한 새로운 전투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카카오, 연내 ‘모두의 AI’ 선보인다

34개 기업·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카톡 이용자 기반 국산 AI 기술 결합

카카오가 34개 기업 및 기관과 손잡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서비스 ‘모두의 AI’를 연내 선보인다. 카카오톡의 이용자 기반과 국산 AI 기술을 결합해 일상적인 질문부터 검색·예약 등 실제 업무 처리까지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AI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14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 2026’에서 모두의 AI 서비스 개발 방향과 출시 계획을 공개했다.

모두의 AI는 카카오톡이나 별도 웹 화면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대화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이어지도록 설계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아이와 함께 방문할 전시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면 AI가 날짜와 이동 거리, 동행 인원 등을 대화를 통해 확인한다. 이후 주변 식당을 추천하고 조건에 맞는 후보를 비교해 예약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컨소시엄 참여 15개사와 얼라이언스 19개사 등 총 34개 기업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운영과 AI 작업 흐름 관리를 담당한다. LG유플러스는 AI 모델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운영을, LG AI연구원은 자체 AI 모델 ‘엑사원’ 관련 기술을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U+, 가을야구 대비 야구장 통신망 점검

잠실구장 네트워크 안정화 실시
통신 설비·트래픽 제어 등 점검

LG유플러스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 대비해 잠실야구장 통신망 점검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잠실 야구장은 이번 시즌 경기를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다. 많은 관중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

먼저, 지난 13일 플레이오프 개막을 앞두고 경기장 내·외부에 설치한 안테나 환경을 최적화하고, 현장 품질 측정을 실시했다. 또한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트래픽 제어와 파라미터 최적화를 거쳤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더라도 불편 없이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내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5G 장비의 경우 상용화 초기 대비 약 1.5배 확대 설치했으며, 내부 LTE 신호를 넓고 균일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주기적으로 교체했다.

고객이 불편을 느끼기 이전에 노후화된 와이파이 설비도 점검 및 교체했다. 특히 주요 경기 일정에는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해 왔다.

한편, 잠실야구장은 44년간 운영되며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구장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잠실야구장 포스트시즌에는 전 좌석(2만3750명) 매진을 기록했다. /조민선 기자

비트코인, ETF 평균 매입가 턱밑… 투자자 손익 '갈림길'

ETF 평균 매입단가 8만1500달러
6.8억달러 유출 후 13일 유입 전환
반등 vs 침체론… 엇갈리는 시장 전망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단가 부근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왔다. /따능AI로 생성한 이미지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을 대체할 가능성이 작다." (캠벨 하비 듀크대 경영대학원 교수 논문 '금과 비트코인', 2025)

"비트코인은 분명 다시 10만달러를 넘어 여섯 자리 가격대로 올라갈 것이다. 비트코인은 6만달러를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바닥을 찍었고, 거기서 반등했다고 본다."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창업주 겸 이사회 의장, 13일 블룸버그TV 인터뷰)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3일 비트코인은 개당 8만3000달러 안팎에서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최고점(12만6251달러)에서 30% 넘게 하락한 수치다. 비트코인 가격이 18만5000~21만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BIT(옛 매트릭스포트)의 장밋빛 전망이 무색할 정도다.

시장에서는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 암호화폐 침체기)'냐 '크립토 스프링(Spring, 활황기)'이냐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투자자를 괴롭히는 질문은 '비트코인이나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사도 되냐, 아니냐'다. 적잖은 현물 비트코인 ETF 투자자들의 경우 현재 시세가 평균 매입단가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14일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가 집계한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투자자의 평균 매입단가는 약 8만1500달러로 나타났다. 비트코인 시세와 불과 2% 안팎의 격차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제임스 세이파트 ETF 애널리스트도 지난달 21일 ETF 보유자의 평균 매입단가를 비트코인 1개당 8만1722달러로 추정했다.

세이파트는 당시 "평균적인 비트코인 ETF 보유자가 1월 이후 처음으로 수익권에 복귀했다"고 밝혔지만, 한 달도 안 돼 비트코인은 다시 이 가격대 부근까지 내려왔다. 글래스노드는 8만1500달러 선이 무너지면 다음 주요 가격대로 '실질 시장 평균가'인 약 7만7500달러를 제시했다.

출범 이후 전체로 보면 결과가 다르다.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소소밸류에 따르면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의 누적 순유입액은 13일(현지시간) 기준 572억2000만달러, 순자산은 1069억8000만달러다. 누적 순유입액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가 ETF로 전환될 당시 보유하던 자산 287억달러(더블록 집계)를 더하면 ETF에 투입된 자금은 약 859억달러로, 순자산이 이보다 210억달러(약 28조원)가량 많은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이는 GBTC 자산을 ETF 전환 시점 가치로 반영한 단순 계산이다. 이미 환매한 투자자의 실현 손익도 포함돼 있어 현재 보유자의 평가손익과는 성격이 다르다.

최근 자금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소소밸류에 따르면 이달 9일까지 한 주 동안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 약 6억8000만달러가 순유출됐고, 12일(현지시간)에도 6540만달러가 빠져나갔다. 그러나 13일에는 피델리티 FBTC(1억306만달러)와 블랙록 IBIT(6589만달러)를 중심으로 1억7562만달러가 순유입됐다.

이환욱 유안타증권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물 ETF와 거래소 자금 흐름은 가격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단기 수급 지표"라며 "지난주 유출 또한 급락에 따른 반작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방향성을 단정하기 이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은 밸류에이션상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위치하며, 현물 ETF 체계와 토큰화 확산이라는 구조적 수요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기 변수는 금리다.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3년 이후 첫 인상이다. 이날 밤(한국시간 오후 9시30분) 발표되는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3.7%)를 웃돌 경우 추가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한편 국내 투자자는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ETF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 증권사의 해외 현물 비트코인 ETF 중개를 막고 있다.

가상자산을 ETF 기초자산에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했지만, 1년 4개월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오르지 못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 절차대로라면 법안소위로 가야 하는데 앞에 밀린 법들이 많아 아직 못 가고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칙이 중요하다 보니 그 논의가 우선돼 뒤로 밀려 있는 건 맞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로 나가던 투자를 국내 시장으로 돌리자는 게 법안 취지 중 하나"라며 "내년 2월 시행되는 토큰증권(STO) 제도가 잘 안착하는 게 우선 숙제"라고 덧붙였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삼성증권, 초고액 자산가 200가문 달성

패밀리오피스 고객자산 55조 넘겨
전담 자문 조직 통해 맞춤 솔루션 제공



삼성증권

삼성증권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가 고객 200가문, 고객자산 55조원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증권 패밀리오피스는 금융자산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층은 전통적인 기업 오너에서 기업 매각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한 엑시트(Exit) 오너, 신흥 기업 오너, 초고액 개인 자산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엑시트 오너 고객은 3년 전보다 약 3배 늘어나며 주요 고객군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 지분과 별도로 100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개인자산가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고객군이 다양해지면서 자산관리 수요도 세분화되고 있다. 기업 지분을 중심으로 자산을 보유한 전통 오너와 기업 성장 과정에서 자산을 축적한 신흥 오너, 기업 매각으로 대규모 현금을 확보한 엑시트 오너는 자산배분 전략과 투자 목적, 승계 계획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프라이빗뱅커(PB)와 본사 투자관리 전문가가 협업하는 '투자관리형 자산관리(Investment Management Model)'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가문별 전담 자문 조직인 '커미티(Committee)'도 운영한다. 사내 분야별 전문가들이 정기적인 연례 미팅과 수시 자문을 통해 고객의 자산 현황과 주요 과제를 점검하고, 투자·세무·승계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관투자자 수준의 운용 프로세스를 적용한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서비스도 주요 솔루션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패밀리오피스 고객의 OCIO 운용규모는 9000억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도 확대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아폴로(Apollo), 블랙스톤(Blackstone), KKR 등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GP)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 등 글로벌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초고액자산가에게 다양한 글로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메리츠증권, 캔톤재단과 금융자산 토큰화

인프라 활용 방안 단계적 검토


(왼쪽부터)비브 디와카르 캔톤 재단 대표와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가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은 캔톤 네트워크(Canton Network)의 운영 재단인 캔톤 재단(CantonFoundation)과 디지털 자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초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와 비브 디와카르(Viv Diwakar) 캔톤 재단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한국 내 금융자산 토큰화와 이를 뒷받침하는디지털 자산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관련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금융자산을 토큰 형태로 옮기는 작업과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갖춘 캔톤 네트워크의 기관용 블록체인 인프라를 국내 자본시장에 들여오는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메리츠증권은 캔톤 네트워크 생태계의 참여기관과 교류하고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디지털 자산 제도가 정비되는 속도에 맞춰캔톤과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미국 블록체인 기업 디지털 에셋(Digital Asset)이 개발한 캔톤 네트워크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갖춘 기관용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캔톤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과 글로벌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제도 정비 상황을 살피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갖춘 디지털 자산 인프라 활용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서학개미, 美 반도체 ETF 집중 매수

해외주식 Click

SOXL에 13억달러 베팅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서학개미들의 투자금이 미국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로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지수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압도적인 순매수 1위에 오른 가운데 반도체 업종 전반에 투자하는 ETF와 주요 반도체 기업에도 매수세가 이어졌다. 초단기 미국 국채와 배당주 ETF도 상위권에 오르면서 공격적인 투자와 위험분산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지난 6~12일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 1위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SOXL)'로 집계됐다. 순매수액은 13억6746만달러로, 2위인 '아이셰어스 0~3개월 미국 국채 ETF(SGOV)'의 6367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SOXL은 미국 반도체 관련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반도체 업종이 상승하면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하락할 경우 손실도 확대된다. 특히 일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구조상 장기간 보유 수익률이 기초지수 누적 수익률의 3배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매수세는 레버리지 상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미국 반도체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아이셰어스 반도체 ETF(SOXX)'가 4629만달러 순매수되며 4위에 올랐다. 대만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는 4316만달러로 5위, 미국 반도체 기업 AMD는 3235만달러로 9위를 기록했다. 인텔도 2582만달러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SOXL을 포함한 이들 반도체 관련 5개 상품·종목의 순매수액은 15억2017만달러에 달했다.

직전 조회 기간인 9월 28일~10월 5일과 비교하면 투자 대상의 변화가 뚜렷하다. 당시 순매수 1위는 알파벳(7163만달러)이었으며 S&P500 ETF(5826만달러), 테슬라(5720만달러), 샌디스크(5716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반도체 관련주인 샌디스크에도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이번에는 개별 종목을 넘어 업종 전반의 상승에 투자하는 반도체 ETF로 매수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반도체 투자에 자금이 집중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에 대한 수요도 이어졌다. 만기 3개월 이하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SGOV는 6367만달러 순매수로 2위, 슈왑 미국 배당주 ETF(SCHD)는 4809만달러로 3위에 올랐다. 두 상품은 직전 기간에도 각각 5위와 6위를 기록했다.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와 함께 배당·단기채를 통한 위험 분산 수요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다만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2.67% 하락했고, 마이크론테크놀로지도 3.88% 내렸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기술 개발 소식과 고금리 부담, 차익실현 움직임 등이 맞물리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다. /허정윤 기자 zelkova@

aT, 내달 '식품외식산업 전망' 콘퍼런스… 미래밥상 그린다

4~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
현장 중심 미래 성장전략 모색
전통주 판로 확대 등 산업 지원


'2026 식품외식산업 전망' 콘퍼런스 현장.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내 식품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콘퍼런스를 개최해 국제 식음료 추이를 살핀다. 또 우리 술의 판로 확대 지원에도 나선다. 전통주 소비 활성화 및 지역 양조장 지원를 위한 협약을 대형 유통업체와 맺었다.

aT는 11월 4~5일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7 식품외식산업 전망'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기술과 가치가 융합된 우리들의 오늘 그리고 미래 밥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총 12개 강연으로 구성된다.

첫날인 4일에는 '식품'을 주제로 ▲일본 에자키 글리코(EzakiGlico)의 미셸 리(Michelle Lee)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케팅 총괄이 '아시아의 다음 식탁: 국경을 넘는 식품 브랜드 구축하기'를 발표한다. 또 ▲민텔(MINTEL) 코리아의 이서윤 애널리스트는 액티브 라이프 스타일이 식음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짚는다.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의 문정훈 교수는 소비자 구매·섭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푸드트렌드 2027'을 소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식품산업의 기회와 위협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진다. ▲지정학적 공급망 재편 속 K-푸드의 기회와 위협(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분석과 K-푸드 패키징 대응 방안(법무법인 세종 정영일 ESG센터장) ▲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안광현 인공지능혁신추진단장) 강연이 이어진다.

둘째 날인 5일에는 '외식'을 주제로 소비자 변화와 외식업의 성장 전략을 다룬다. 오전에는 ▲마크로밀 엠브레인 채선애 트렌드센터장의 'AI가 대신할 수 없는 소비자의 진짜 영점(零點)에 주목해야 한다' ▲생활변화관측소 박현영 대표의 '혼자 살고, 오래 살고, AI와 함께 사는 세상에서 외식업의 기회' ▲용인대 박승찬 교수의 '중국 프랜차이즈의 국내 진출이 외식시장에 미칠 파장과 K-브랜드의 대응 전략' 등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외식경영 해법에 초점을 맞춘다. ▲27년 경력의 샘킴 셰프 ▲제이디브랜딩 배문진 대표 ▲스페이스콘텐츠푸드(SCF) 양성욱 이사가 연사로 나선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온라인 실시간 중계 없이 현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2027년 식품·외식 산업의 흐름을 확인하고, 강연자와 직접 질의응답을 나누며 업계 관계자들과 교류할 수 있다.

aT는 앞서 지난 8일 서울 GS타워에서 GS리테일과 전통주 소비 활성화와 지역 양조장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aT의 전통주 산업 육성 사업과 GS리테일의 온라인 플랫폼 및 전국 유통망을 연계해 소비자의 전통주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양조장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aT 전기찬 수출식품이사와 GS리테일 전진혁 O4O부문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aT는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등 우수 전통주와 양조장을 발굴·추천하고, '찾아가는 양조장' 관련 정보 제공과 콘텐츠 홍보,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지원에 힘을 보탠다. GS리테일은 자사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전통주 홍보와 판매, 고객 참여 행사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역 농산물 활용과 로컬브랜드 육성을 통한 지역 상생에도 협력한다.

우선 GS리테일의 온라인 주류 주문·수령 서비스인 '와인25플러스'를 활용해 소비자가 모바일로 전통주 정보를 확인하고 주문한 뒤 가까운 GS25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온라인 판매 성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정해 GS25와 GS더프레시 등 오프라인 매장으로 판매 채널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양 기관은 계절별 전통주 기획전과 공동 홍보를 진행하고, '찾아가는 양조장'과 연계해 지역 양조장과 제품의 특색을 알릴 계획이다. GS리테일은 10월 온라인 플랫폼에 '전통주 전용관'을, 11월에는 '찾아가는 양조장' 코너 개설을 추진하고 연말 공동 기획전도 논의 중이다.

aT의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우수한 전통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소비자가 편리하게 제품을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기반이 중요하다"며 "GS리테일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양조장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전통주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재경부,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뽑는다

하반기 선정 절차… 12월 중순 마무리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기업 등 대상

정부가 '2026년 하반기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서비스 등의 도입·생산·제공 등에 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소관부처에 제출해 인정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다.

지난 2024년 6월 관련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16개 기업 등이 선도사업자로 선정됐다. 지정 기간은 최초 선정일로부터 기본 3년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도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선정은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희망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급망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 사업 내용과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계,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화 추진계획, 재무여건 및 이행능력 등을 담아야 한다.

이번 선정은 지난 12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논의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방안'을 반영해 추진한다. 개편된 경제안보품목·서비스를 대상으로 수입선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대체 기술개발, 비축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업 등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는 공급망안정화 기금 우선 지원과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승욱 재경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와 생산기반 확충 등 실질적인 공급기반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며 "경제안보품목·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를 발굴하고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이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등과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협약식을 갖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정부 화재안전 정책 적극 지원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

농협중앙회가 행정안전부·한국화재보험협회와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최근 잇따른 노후 아파트 및 연립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연계해 국민 화재안전에 힘을 모은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 행정안전부 화재안전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화재 취약가구에 대한 선제적 예방망 구축에 나선다. 주요 협력사항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지원 ▲하나로마트 판매망 구축 ▲화재안전 대국민 홍보 등이다.

농협은 주요 민간 협력 파트너로서 3년간 총 3억원 상당의 연기감지기를 지원한다.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연기감지기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나로마트를 통한 공급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 범농협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해 화재안전 수칙과 연기감지기 설치 필요성을 알리며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남부발전

GPS 기반 실시간 안전관리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가 옥내 저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발전사 최초로 GPS 기반의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남부발전은 옥내저탄장 안전사고 제로화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GPS 기술을 활용해 저탄장 내 작업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송수신한다. 특히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 관리자에게 즉시 알람을 전송해 신속한 구조와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남부발전은 앞으로 출입 절차 교육과 지침 제정을 병행하고 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해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일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전기공사協, 전력 산업현장 개선 '맞손'

상생협력 업무협약… 합리적 현장 조성

한국전력과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전력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손을 잡았다. 한전은 지난 13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기공사업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합리적인 현장 공사 여건을 조성하고, 작업장 안전과 시공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향후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향상 ▲공사비 산정기준 및 계약조건 등 제도 개선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주요 현안 해소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환경 조성 등 5대 중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치교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전과 전기공사업계가 안전과 품질은 함께 책임지고, 경쟁력은 세계로 키워 나가는 출발점"이라며 "설계·시공·기자재·운영에 이르는 전력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전력은 지난 13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했다. (왼쪽부터) 정치교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 이형주 한국전기공사협회장. /한전

무보, 중소·중견기업 수출 애로 해소 총력

지사 네트워크 활용 접점 확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전국의 지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자체와 지역별 수출지원기관이 공동 개최하는 수출지원 간담회에 참여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현장 경영의 일환으로, 자금난과 대외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무역보험을 신속하기 지원하기 위해서다.

무보는 지난 9월 열린 '대구·경북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간담회' 등에 참가해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물류비 가중 등 기업들의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다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지자체와 연계한 보험료 지원 사업 소개와 신속한 보증 심사를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 무역금융이 적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다.

아울러 최근 환율 급변동에 따른 손실을 차단할 수 있는 '환변동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밀착형 리스크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김호연 작가의 밀리언셀러 소설이 공연으로 재탄생
불편한 편의점
뮤직드라마
Always
24 Times
예매하기
2026.4.3 - OPEN RUN
올웨이즈씨어터



골목상권 회복·소상공인 지원 역량 집중
청년 일자리 확충해 지역 정착 기반 마련
고령화·1인 가구 대응 복지 안전망 강화
돌봄부터 교통·문화까지 생활 불편 개선

AI소통혁신팀 신설, 공공서비스 혁신 시동
복지·안전·교통 분야 AI기술 단계적 도입
구포역·구포시장 활성화로 지역 새 활력
주민 목소리 정책으로 연결해 변화 실현

"민생 살리고 AI 행정 혁신… 구민 '삶의 질' 높이겠다"

인터뷰
정 명 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 북구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AI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접목하고 지역 자산의 경쟁력을 높여 구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을 정명희 구청장으로 부터 들어봤다.

- 민선 9기 구정 방향인 '구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북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나

"행정은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는 일이 아니라 주민의 바람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선거 기간 현장을 다니며 아이 돌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으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기대를 막연한 희망으로 남겨두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과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북구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구정 방향에 담았다."

- 취임 100일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북구의 현실과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지난 100일 동안 골목과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을 찾으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과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중장년층이 지역에서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복지 분야에서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갖추는 데 힘쓰겠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찾아 적절한 복지·돌봄 서비스로 연결하는 선제적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포역과 구포시장 등 지역 자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AI 같은 미래 기술을 접목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 경쟁력도 키워가겠다."

- 최근 AI가 행정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북구가 추진할 AI 행정은 어떤 모습인가

"북구가 지향하는 AI 행정은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일상에서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AI소통혁신팀을 신설한 것도 AI 기술을 공공서비스 전반에 적용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복지와 안전·교통·교육·민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부산시의 AI 행정·생활서비스 확산 정책에도 발맞춰 북구를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서 시험하고 검증하는 생활밀착형 AI 실증 거점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 활용 역량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공직사회의 AI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겠다. 특히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 행정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의 일상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북구가 추구하는 AI 행정의 방향이다."

- 지난 8일 개최된 북구 미래비전 공유회는 기존의 취임 100일 행사와 어떤 차이가 있었나

"이번 공유회는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북구가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행정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앞으로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 비전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선포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와 바람이 더 해질 때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존의 보고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내빈 인사말 등 의전 절차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목소리와 현장 이야기에 집중했다. '탑승-이륙-항해-목적지 도착'이라는 여정에 연극 형식을 더해 오늘의 북구에서 더 행복한 내일의 북구로 나아가는 과정을 표현했다."

"취임 후 100일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의 현실을 살피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목소리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 주민과 약속한 변화를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것이 이번 공유회의 핵심 의미다."

- 주민들이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를 강조했다. 임기 동안 어떤 북구를 만들고 싶은가

"눈에 띄는 대형 사업의 성과만을 앞세우기보다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편리함과 행복을 느끼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양육과 돌봄·교육 문제로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시 희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에도 힘을 쏟겠다. 어르신들은 정든 동네에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의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출퇴근길의 불편을 줄이고 집 가까이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도 차근차근 마련할 계획이다."

"결국 주민들이 "살아보니 참 편해졌다", "북구에서 사는 것이 참 좋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의 작은 변화가 모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의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구정을 추진하겠다."

-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지난 100일 동안 골목과 시장에서 주민들이 건네준 따뜻한 인사와 북구의 미래를 위한 의견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삶을 가까이 살피면서 구청장으로서 맡은 책임과 역할도 다시 한번 되새겼다. 100일은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인 만큼 그동안 준비해 온 계획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겠다."

"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겠다. 청년들에게는 지역에서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도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하겠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과 눈을 맞추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주민의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한 실천으로 신뢰에 보답하면서 '구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북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위)고령 구민과 대화. (아래)구민의 생각을 더하다 PT.



구정활동 모습.

◆정명희 북구청장 약력

▶ 경력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장
-민선7기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민선6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기초자치단체장 유일)
-전) 부산광역시 약사회 약바르게알기 본부장

▶ 학력

-진해여자중·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홈플러스, 매출 부진·M&A 난항… 경영 정상화 '적신호'

이달 초 매출, 회사 목표 못 미쳐
납품 거래 정상화 지연 등 영향
현재까지 뚜렷한 인수 후보 없어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뉴시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납품 거래 차질과 인력 구조조정, 입점업체 피해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인수합병(M&A)을 통한 정상화에도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이달 초 실제 매출은 회사가 설정한 목표의 약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중순 목표 대비 약 40%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달성률이 더욱 낮아졌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지난 9월 둘째 주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4주간 주평균 신용·체크카드 결제 추정액은 약 180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 중단 전인 6월 첫 4주 주평균 약 195억원보다 7.5% 감소한 규모다.

홈플러스의 카드 결제액은 지난 7월 13일 전 점포 휴업 이후 급감했다가 8월 13일 영업을 재개하면서 반등했다. 그러나 9월 2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추석 직전인 9월 셋째 주 약 220억원까지 증가했지만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약 178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카드 결제 추정액은 실제 매출과 차이가 있으며 명절 수요와 영업 점포 수 변화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납품 거래 정상화 지연이 꼽힌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해 영업을 재개했지만 납품업체들과의 신용거래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상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신거래를 통해 재고도 계속 증가시키고 매출도 증가시키는 계획이었지만 현실은 선지급과 현금거래밖에 가능하지 않다"며 "매출이 증가하는 데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영업 재개 이후 비식품 매대를 비우고 자체브랜드(PB) 상품과 회전율이 높은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 매대마저 상품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상태다.

매출 부진 속에 결국 인력 구조조정도 본격화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달 7일부터 22일까지 본사와 점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운영 점포가 회생절차 개시 전 126개에서 현재 67개로 줄어들면서 직원의 약 50%가 유급휴업 중인 만큼 고정비 절감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미지급 급여와 추석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지만 별도의 위로금은 없다. 이에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이것은 희망퇴직이 아니라 체불임금을 내건 퇴직 모집"이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정부의 회생계획 이행 점검과 인수자 발굴 지원 등도 요구하고 있다.

경영난은 입점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주연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휴업 기간 발생한 입점업체의 영업 손실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는 여력이 안 된다"고 답했다. 납품업체 이탈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상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영향이라고 인정했다.

현재 홈플러스에 남아 있는 입점업체는 약 2300개다. 홈플러스는 미지급 채권 상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M&A와 폐점한 자가 점포 19개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조 대표는 "10월 말 인수의향서를 받도록 돼 있다"며 "M&A를 신속히 진행해 모든 채권을 빠르게 갚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뚜렷한 인수 후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매각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통매각이 무산될 경우 점포와 부동산 자산을 나눠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추가적인 고용 불안과 입점업체 피해가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대형 마트 업계 자체의 부진과 현재 매출 및 재고 수준을 고려하면 통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고 확보가 최우선인데 이 점이 인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삼양식품, '불닭·탱글'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

시알 파리 2026

메인부스·비즈니스 상담 라운지 운영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유통망 확장"



삼양식품 '시알 파리 2026' 메인 부스 조감도

삼양식품이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중 하나인 '시알 파리(SIAL Paris) 2026'에 처음 참가해 불닭과 탱글 등 주요 브랜드를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양식품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 노르 빌팽트 전시센터에서 열리는 시알 파리 2026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관 내 메인 부스와 혁신관 내 비즈니스 상담 라운지 등 2개 공간을 운영한다.

메인 부스는 'CRAVE LAND(The Spiciest Place on Earth)'를 주제로 꾸민다. 불닭은 캐릭터 페포(PEPPO)를 활용하고, 프로틴 파스타 브랜드 탱글은 대형 컵 조형물과 제품 소개 공간을 마련해 브랜드별 특성을 강조한다.

현장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스탬프 투어도 진행한다. 관람객은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퀴즈와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샷 미션을 완료하면 캐릭터 굿즈와 라면 제품 등을 받을 수 있다.

시식 행사도 매일 4차례 열린다. 불닭 오리지널과 까르보 불닭을 비롯해 탱글 크리미 머쉬룸, 탱글 갈릭 오일, 탱글 불고기 등을 현장에서 조리해 선보인다. 비즈니스 상담 라운지는 글로벌 바이어와의 개별 미팅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체험형 마케팅과 바이어 상담을 통해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유통망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웰푸드 "산리오 빼빼로 선물하세요"

빼빼로데이 앞두고 다양한 한정판 선봬

롯데웰푸드가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인기 캐릭터와 협업한 시즌 한정 제품을 선보인다. 글로벌 앰배서더 스트레이 키즈를 비롯해 산리오캐릭터즈, 가나디 등을 활용한 기획 제품으로 선물 수요를 겨냥한다.

롯데웰푸드는 빼빼로데이 시즌 패키지 10종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협업 제품은 7종이다. 스트레이 키즈를 적용한 아몬드·화이트쿠키 패키지 2종과 헬로키티·포차코·시나모롤·한교동 등 산리오캐릭터즈를 활용한 4종, 가나디와 협업한 '가나디 어쏘트 5입'으로 구성했다. 산리오캐릭터즈와 가나디 제품에는 캐릭터 스티커와 책갈피 등 굿즈를 동봉했다.

선물용 종합 패키지도 마련했다. 6가지 맛을 담은 '샘플러 6입'과 독특한 패키지 구조를 적용한 '캐리어 4입', '기프트 6입' 등을 선보인다. 올해 상반기 한정 제품으로 출시했던 '빼빼로 더블리치 솔티 바닐라'도 빼빼로데이 시즌에 맞춰 재출시한다.


롯데웰푸드 '빼빼로데이' 기념 컬래버 패키지 /롯데웰푸드

오프라인 캠페인도 확대한다. 롯데웰푸드는 빼빼로의 핵심 가치인 '나눔'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에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쿠팡, 미식 전문관 'House of Taste' 오픈

맛집 메뉴·셰프 레시피 상품 등 선봬

쿠팡 로켓프레시가 셰프와 전국 맛집, 식품 트렌드를 담은 먹거리를 한곳에 모은 미식 전문관 'House of Taste(하우스 오브 테이스트)'를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

로켓프레시 미식관은 셰프 브랜드와 전국 맛집의 대표 메뉴부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까지 다양한 식품을 한곳에서 선보이는 전문관이다. 밀키트와 가정간편식(HMR)을 비롯해 베이커리, 디저트, 냉동식품, 유제품, 음료 등 카테고리를 운영한다.

현재 미식관에서는 20여 개의 셰프 브랜드와 140여 개의 맛집 브랜드를 포함해 총 200여 개 브랜드의 800여 개 먹거리를 판매한다. 와우회원은 로켓프레시 새벽배송을 통해 전국 각지의 맛집 메뉴와 셰프의 레시피를 활용한 식품을 받아볼 수 있다. 대표 브랜드로는 한우 전문 브랜드 '벽제갈비', 유러피언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테이블 포포', 중식 파인다이닝 '누와', 천연 발효종 베이커리 브랜드 '브로드카세' 등이 있다. 각 브랜드의 대표 메뉴와 셰프의 레시피를 활용한 간편식부터 베이커리, 디저트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맛집과 협업한 레스토랑간편식(RMR) 상품도 준비했다. 쿠팡은 숯불닭갈비와 닭 특수부위 메뉴로 알려진 닭요리 전문 브랜드 '팔각도'와 개발한 상품을 단독으로 선보인다. '짜글짜글 닭떡볶이'를 비롯해 간장·매콤·마늘 닭갈비 등 총 4종이다. 팔각도의 조리법을 바탕으로 매장 메뉴를 가정에서도 간편히 즐길 수 있도록 개발했다.

셰프 협업 상품도 선보인다. tvN 요리 예능 프로그램 '스트릿 레스토랑 파이터' 톱4 셰프 김호윤, 김훈, 이성훈, 최상현과 협업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다음 달 8일까지 매주 순차적으로 공개·판매한다. 1차 라인업으로는 '우육탕면', 'XO 소스 쉬림프 먹물생면파스타', '마늘칩 감바스볶음밥' 등이 있다. 이후 셰프별 레시피를 담은 협업 상품을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글로벌 트립' 선봬

첫 상품 '럭셔리 크루즈 여행' 테마

롯데백화점이 VIP 고객인 '에비뉴엘'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 '에비뉴엘 글로벌 트립(AVENUEL GLOBAL TRIP)'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에비뉴엘 글로벌 트립은 롯데백화점이 에비뉴엘 고객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여행사와 함께 기획한 해외여행 프로그램이다. 에비뉴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1:1 컨시어지 맞춤 여행 설계를 진행한다. 또한 자택과 공항 간 왕복 이동을 지원하는 '버틀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 중 사용 가능한 전용 기프트와 크레딧을 지급한다.

롯데백화점은 롯데백화점 앱 내 에비뉴엘 온리(AVENUEL Only) 탭을 통해 2027년 에비뉴엘 글로벌 트립 상품의 예약을 모집한다. 에비뉴엘 오렌지 등급부터 블랙 등급 고객까지 접수할 수 있다. 모든 '에비뉴엘 글로벌 트립' 여행 상품 구매 금액은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선정 매출로 최대 100%까지 인정된다.

첫선을 보이는 여행 상품은 모두 '럭셔리 크루즈 여행'을 테마로, '리츠칼튼 요트 컬렉션'의 선상 크루즈 여행으로 진행된다. /김서현 기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지역 의료기관 잇고 중증 진료 강화

조재호 병원장, 경영 비전 공유
권역응급의료센터 고도화 추진
강원대병원 등과 당직 정보 공유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



14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조재호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한림의료원

지방 소멸 위기와 맞물려 심화되는 지역 의료 붕괴와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서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강원 지역에서 상생 기반의 네트워크와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한다.

한림의료원은 14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지난 9월 취임한 조재호 제23대 병원장의 경영 비전과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재호 병원장과 이재준 한림대의료원장(연구원장)을 비롯해 기획실장, 행정원장, 간호부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해 강원 지역이 직면한 의료 환경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미래 발전 전략을 알렸다.

조재호 병원장은 강원 지역 의료가 안고 있는 지리적·인구학적 한계부터 짚었다. 강원도는 넓은 면적과 산악 지형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병원 도착률이 낮은 취약성을 안고 있다. 조 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 병원이 모든 진료 기능을 무리하게 확대해 수용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역 완결형 의료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이 책임질 수 있는 환자를 최대한 치료하고 더 고난도 역량이 필요한 질환은 잘하는 병원으로 신속하게 연계해야 한다"며 "의료기관들이 각자 잘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해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지역 완결형 의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춘천성심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고도화, 뇌신경 질환 특화, 근골격계 질환 전문화라는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한다. 춘천성심병원은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지역 응급의료 공백 우려가 커진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24시간 전문의 중심 진료 체계를 유지해 왔다.

향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권역중증의료센터로 재탄생시키고, 홍천군과의 뇌신경 건강 사업 및 원격 협진 등을 통해 예방부터 응급 치료, 재활, 퇴원 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유기적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상생도 구체화한다. 춘천성심병원은 강원대병원 등 지역 병원들과 소아 응급 당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응급 환자를 수용하는 네트워크를 가동 중이다.진료 역량 밑바탕에는 독보적인 첨단 연구 성과가 자리 잡고 있다. 춘천성심병원은 2025년 4월 강원도 최초로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획득하며 지방대학병원의 연구 한계를 뛰어넘었다.

간담회에서 이재준 연구원장은 범부처 과제로 자체 개발해 임상 실증까지 완료한 '뇌출혈 AI 비대면 협진 플랫폼'을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의료 소외 지역 병원에서 환자의 뇌 CT 영상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면 전자의무기록(EMR) 연동형 AI 알고리즘이 뇌출혈 유무, 출혈량, 위치를 실시간 판독하여 자동 진단서를 생성한다. 해당 내용을 거점 병원 전문의에게 즉시 알람을 보내 비대면 협진이 가능하다.

실증 결과, 강원 권역 22명, 제주 권역 12명 등 총 34명의 중증 뇌출혈 환자 생존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며 현재 미국 보스턴 메사추세츠 대학교 등과 협력하는 등 글로벌 현지 실증으로 확산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춘천성심병원은 미래 의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4대 연구 인프라를 한층 강화한다. 첨단 융합 기술과 뇌과학을 다루는 뉴프론티어리서치연구소, 근육생물학과 인공관절을 연구하는 한림골격노화연구소, 마이크로바이옴과 멀티오믹스 진단을 연구하는 한림소화기연구소와 함께,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보유한 미세생리시스템연구소는 누리호에 바이오 큐브위성을 실어 발사해 우주생명공학 영역까지 연구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조 원장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필수 의료와 중증 질환에 철저히 집중하고, 우수한 연구력과 상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든든한 의료 안전망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베트남 국립대와 협력

베트남 HUS 워크숍서 기조연설
공동연구 등 포괄적 MOU 체결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가 지난 10일 베트남 국립대 하노이 자연과학대학교(HUS) 생명과학부 창립 70주년 기념 국제 워크숍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베트남을 대표하는 바이오 명문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동남아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지난 10일 베트남 국립대 하노이 자연과학대학교(HUS) 생명과학부 창립 70주년 기념 국제 워크숍에서 기조연설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날 베트남 자회사 VOS 디스커버리(Discovery)는 HUS가 주도하는 생명공학 협력 네트워크와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HUS는 베트남국립대학교(VNU) 소속의 대표적인 기초과학 교육·연구기관이다. 1956년 설립된 생명과학부는 70년간 수많은 과학자와 우수 연구 인력을 배출했으며, 이번 기념식에서 베트남 총리 표창을 받았다.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병원, 기업 등이 참석해 대학의 연구 성과를 의료와 산업으로 연결하는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유종만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오가노이드 기술이 신약 평가를 넘어 환자 치료를 위한 재생치료제로 발전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대표 사례인 장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아톰-C(ATORM-C)'는 환자 본인의 장 조직에서 얻은 성체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다. 내시경으로 장 궤양 부위에 투여해 손상된 점막의 재생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유 대표는 연구용 조직 모델이 실제 환자에게 투여되는 치료제로 이어지는 사례를 통해 오가노이드 기술의 산업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베트남 자회사 VOS Discovery가 참여한 포괄적 MOU는 인재 양성, 학술 교류, 연구시설·데이터 공유, 시장 수요에 기반한 공동연구와 국제 협력을 주요 방향으로 한다. 베트남의 주요 학술기관이 주도하는 네트워크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현지 연구자와 의료기관·기업을 잇는 공동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산업화 경험을 현지 연구 생태계에 접목하고 제품과 서비스 개발로 연결할 기회도 넓어질 전망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셀트리온, 美 대형 PBM 추가 등재 임박

후속 제품 매출 확대 기대

셀트리온이 미국 대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와 고수익 후속 제품군의 처방집 등재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하며 4분기 내 추가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3분기 매출액 1조 5000억원, 영업이익 5100억원의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한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 기존 제품군의 견조한 판매 성과와 후속 제품군의 환급 기반 확대를 바탕으로 4분기에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미국 제약 시장에서 PBM 관할 처방집 등재는 제품 처방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선호의약품 등재가 이뤄질 경우 환급 커버리지 확보를 기반으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크게 높아져 처방 가속화로 이어지게 된다.

셀트리온은 후속 제품군의 대형 PBM 등재 계약에 잇달아 성공하며 미국 보험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왔다.

지난해 10월 미국에 출시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앱토즈마'는 미국 3대 PBM의 사보험 처방집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되며 출시 초기부터 현지 보험 시장의 절반이 넘는 환급 커버리지를 확보했다. 이달 초 미국에 출시된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옴리클로' 역시 대형 PBM인 '옵텀'(Optum)의 사보험 처방집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됐다.

셀트리온 미국 법인은 기존 제품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축한 의료기관 및 유통 채널과의 네트워크를 신규 제품군의 시장 진입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존 제품군의 안정적인 판매 성과에 더해 고수익 후속 제품군의 처방 확대 및 대형 PBM 등재 계약 추가도 가시화되면서 미국 시장 내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인벤티지랩, 1년 지속형 주사제 美 특허 등록

후속 사업화 논의 구체화

약물전달기술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동물용 화학적 거세제에 적용되는 12개월 지속형 펩타이드 주사제 기술에 대해 미국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회사는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기업과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특허 등록을 계기로 후기 개발과 제조생산기술이전(Tech Transfer)을 포함한 후속 사업화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반려동물의 비수술적 중성화 시장에서 GnRH 작용제 기반 제품을 개발·상용화해 온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트너사는 동일 성분 제품의 개발·허가·판매 경험과 글로벌 사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공동개발 제품의 상업화 과정에서 기존 개발 경험과 시장 접근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번 특허 등록 결정은 인벤티지랩이 축적해 온 장기지속형 펩타이드 제형 기술을 12개월 지속형 영역으로 확장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미국 내 권리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펩타이드 후보물질을 대상으로 축적한 제형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3개월·6개월·12개월 등 초장기 지속형 제형으로 플랫폼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벤티지랩에 따르면 현재 파트너사와 본격적인 상업화 제조생산 사이트 확정 및 IVL-DrugFluidic 제조 플랫폼 기술이전(Tech Transfer)을 포함한 사업화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광동제약, 침향환 논란에 광고 관리 강화

판매처 광고 표현 개선 취지 공감

광동제약이 최근 제기된 침향환 이슈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향후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며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 및 제약·유통 업계를 중심으로 침향환의 과대 광고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침향환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가공식품임에도 일부 판매처가 효능·효과를 강조하며 마치 의약품이나 건기식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품에 포함된 실제 침향 원료의 함량이나 원가에 비해 소비자 가격이 지나치게 고가로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

광동제약은 침향환의 가격 구조에 대해 "여러가지 주·부재료 중 특정 성분의 함량과 원자재값 추산만으로 판매가나 이익 규모를 가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완제품 생산까지는 원료·부재료 혼합 비율뿐만 아니라 품질선별, 정밀제조, 안전성 검증까지 전 공정에 걸친 철저한 품질 관리와 노하우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호순 전 부회장도 "생약재의 특성상 같은 재료라도 품질에는 큰 차이가 난다"면서 "원료별 취급 노하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2026 제약 · 바이오 포럼

노화를 되돌리다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제약 · 바이오 포럼
주 제 노화를 되돌리다 :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일 시 2026년 10월 21일(수)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제약 · 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고급 3단 완전자동 양우산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 프로그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백종헌** 국회의원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근부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
강연	15:00~15:30	**전해민**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 센터장
	15:30~16:00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16:00~16:30	**조경아** 메디스팬 대표
	16:30~17:00	**양재현**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

metro · metro경제



아모레퍼시픽, 인도 청년 자립·진로탐색 지원

아모레퍼시픽이 인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진로 탐색을 돕는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0일 인도에서 '밋 유어 뷰티 아카데미' 첫 현지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도 델리 수도권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해 진행됐다.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충남 자립준비청년에 1억 기탁

애경산업은 충남도청에서 충청남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충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3차년도 전달식을 열고, 총 1억 원을 지정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왼쪽부터)충청남도새마을회 성낙구 회장, 애경산업 김상준 대표, 충청남도 박수현 도지사,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병설 사무처장, 보둠 나눔봉사단 장지영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애경산업



조인호 기계설비협회 명예회장, 5000만원 기부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명예회장이 기계설비 업계 발전과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5000만원을 기부했다. 기계설비협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기계설비회관에서 조 명예회장의 '기계설비 발전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협회



LG헬로비전, 자립준비청년 사회 정착 돕는다

LG헬로비전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장을 돕는 '2026 헬로, 동행 자립캠프'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이번 캠프는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청년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긍정적인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LG헬로비전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

하나금융그룹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전 그룹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3일 명동·강남사옥을 시작으로 14일 여의도사옥, 30일 청라사옥까지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나금융그룹

장인화, '2027 세계철강협회 정기총회' 서울 유치

〈한국철강협회·포스코그룹 회장〉

인도 뉴델리 회원사 회의서 발표
2005년 이후 22년 만에 서울 개최
저탄소 전환·글로벌 협력 등 논의

장인화 한국철강협회장이 2027년 세계철강협회 정기총회의 서울 유치를 이끌어냈다.

14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세계철강협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회원사 회의에서 2027년 총회 개최지로 서울을 공식 발표했다.

매년 10월 열리는 세계철강협회 총회는 글로벌 철강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여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다. 서울 개최는 2005년 이후 22년 만이다.

장인화 회장은 서울 총회 홍보 영상에 직접 출연해 세계철강협회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했다.

이번 총회 유치는 한국 철강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조강 생산량 6223만톤으로 세계 6위, 1인당 철강 소비량 844kg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주요 수요산업을 뒷받침해 온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11일(뉴델리 현지시간),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과 JSW그룹 사잔 진달 회장이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한국 철강업계는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열린 뉴델리 총회에서 글로벌 협력 확대에도 나섰다. 11일 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저탄소 철강제품 가이드라인 개발과 탄소배출량 할당 방식의 국제 표준화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극한 재난에 대비한 민관 협력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총회 기간에는 인도 JSW그룹의 사잔 진달 회장 등 주요 철강사 대표들과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포스코는 현재 JSW스틸과 인도 현지 일관제철소 합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포스코그룹의 '트리플 코어' 전략에 따른 현지화 투자의 일환이다. 포스코는 성장성이 높은 해외 시장에서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국내 철강사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SK이노,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확대

껀터시 정부, 맹그러브 등과 '맞손'
2030년까지 200ha 조성 목표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을 확대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사회 상생을 함께 추진한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3일 베트남 껀터시 정부, 현지 사회적기업 맹그러브(MangLub)와 맹그로브 숲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은 베트남 껀터시에 식수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조림지를 관리·보호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베트남에 신규 조성할 숲은 200헥타르(ha)로, 서울숲(50ha)의 4배 규모다.

숲 조성과 관리에는 현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 SK이노베이션은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맹그로브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교육도 진행한다. 협약에 참여한 맹그러브는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빈롱성에 설립한 사회적기업으로, 맹그로브 생태계 보전과 환경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쩐 응억 동(Tran Ngoc Tung) 베트남 껀터시 맹그로브 산림관리위원장, 엄상홍 SK이노베이션 CSR팀장, 티 하이 팜(Thy Hai Pham) 맹그러브 대표가 13일(현지시간) 베트남 껀터시 농업환경국에서 '맹그로브 숲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주민들과 조림지를 관리하면서 생태계 복원 효과도 측정할 계획이다. 전과정평가(LCA) 역량을 활용해 식재 지역의 생물다양성 발자국을 측정하고 복원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원관희 기자 wkh@

소진공,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

인태연 이사장 동참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14일 소진공에 따르면 '사람 살리는 금융'은 불법 금융 피해로부터 국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포용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7월 시작한 공익 릴레이 캠페인이다. 참여자가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 이사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정훈 사장의 지목을 받았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립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재기와 회복을 돕는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으로 위기를 겪지 않도록 돕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포용금융 지원 의지를 다졌다.

인 이사장은 캠페인 다음 참여자로 원영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과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을 지목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서울시교육청, 주도적 진로설계 교육 논의

오는 27일 '서울진로교육포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으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진로 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업을 선택하는 데서 나아가 학생들이 스스로 삶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용산구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4회 2026 모두를 위한 서울진로교육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일과 삶이 재편되는 시대, 서울진로교육을 다시 묻다'를 주제로 열린다. 학생들이 자신과 사회의 변화를 이해해 삶과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도전과 실행을 통해 가치를 만드는 '창업가정신'을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서울대 교육학과 오헌석 교수의 기조 강연을 맡는다. 오 교수는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주제로 강연한다.

'실패를 자산으로, 도전을 진로로'를 주제로 토크쇼가 이어진다. 토크쇼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오 교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김효정 교육본부장 등 7명이 참여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포럼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교원과 교육 전문직, 학부모, 진로교육 관계자 등이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교육부, 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점검 강화

법정 검사 주기 4년 → 1년 단축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점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법정 검사 주기를 기존 4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열화상 장비를 활용한 점검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학교 태양광 설비 확대에 대비해 점검 체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햇빛이음학교는 교육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학교 태양광 설비를 4년마다 최소 한 차례 이상 점검한다. 이번 협약으로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는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단축한다. 예상 검사 비용은 연간 약 20만원이다.

점검 항목도 늘어난다. 기존 법정검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열화상 측정을 추가했다. /김수정 기자

인 사 ◆ **전북일보** △ 정치경제부장 이강모 △ 사회교육문화체육부장 강정원 △ 정치경제부 차장 김태경

부 음 ▲ 박찬형씨 별세, 이종완(KBS전주방송총국 편집부장)씨 장인상 = 13일, 전주현대장례식장 101호, 발인 15일 오전 6시50분. 063-275-4444 ▲ 최용민(향년 81세)씨 별세, 최인국(경인모터스 근무)·최인(두산건설 전략혁신실장·전무)씨 부친상, 이경희·이은미씨 시부상 = 14일 오전 10시,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6일 오전 8시. 051-893-4444

中요하고 小중한 企業



김승호의 시선

'중소기업'이란 단어를 넣어 만든 '중요하고 소중한 기업'이란 문장은 사실 기자가 엄숙한(?) 자리에서 한두번 써 먹었던 건배사다. 칼럼에 무슨 술자리에서 오간 건배사까지 끄집어내느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

2024년 기준 우리나가 중소기업 숫자는 849만9552개로 전체 기업수의 99.9%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종사자는 총 1912만4806으로 전체의 80.4%에 이른다. 기업 10곳 중 9곳은 중소기업, 국민 10명 중 8명은 소상공인을 하거나 중소기업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80% 국민의 생계가 달려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19개 부처, 6개 처 등 총 50개(19청 6위원회 포함)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그 중요성이 적지 않다.

이런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유일하게 장관급 부처로 격상한 중기부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위해선 일자리 창출 근원인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탄생했다.

현 이재명 정부 들어선 전체 기업의 95.3%, 종사자수의 46.5%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 강화를 위해 중기부 내에 제2차관을 신설하기도 했다.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중기부 장관엔 현 이소영 장관까지 총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직전 경력 기준으로 이 가운데 정치인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 1명, CEO 출신 1명씩이다.

하지만 중기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시대적 요구와 중소기업인들의 염원과 달리 과거 중소기업청과 뭐가 다르냐는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몸집만 커진 중기청'이라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앞서 중기부 장관을 하다 퇴임한 6명 중 일부는 '중요하고 소중한 중소기업'을 챙기기보단 자기 정치만 하다 간 인물도 있다.

장관 재직 기간은 2대 박영선 장관이 약 1년 9개월로 그나마 가장 길었지만 모두 2년을 넘기질 못했다. 인사권자가 경제 시계보다 정치 시계를 우선한 탓이다.

최근 취임한 이소영 장관도 '10년 중기부'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말 진행한 취임식 인사말에서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이 쌓아 온 토대 위에서, 이제 새로운 10년을 열어야 한다. 앞으로의 10년은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역으로 서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10년'이 '과거의 10년'과 전혀 동떨어질 순 없다.

그래서도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것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직을 만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 동분서주했고 기관을 가다듬어야 할 수장들은 채 2년을 채우지 못했다. 막내 부처로서의 한계도 컸고 부처간 이기주의나 줄다리기도 적지 않았다.

어쩌면 '중요하고 소중한 기업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에 대한 성찰도 열살을 앞둔 지금이 골든타임일지 모른다.

/bada@metroseoul.co.kr

금융감독의 '주소'는 어디인가



기자 수첩

허정윤 〈자본시장부〉

금융위원회의 세종행이 확정된 13일, 금융감독원 안팎도 술렁였다. 한때 금융위의 서울 잔류설이 돌면서 안도하던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금융위가 떠난 자리에 금감원만 남게 될지, 아니면 곧장 세종행 짐을 싸게 될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금융위의 이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주요 경제부처가 모인 세종에서 금융정책을 조율하면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방향에도 부합한다. 다만 금융위가 세종으로 간다는 사실이 금감원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금감원의 일은 책상 위 보고서에서 끝나지 않는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살피고 내부통제의 허점을 찾아내며, 사고가 터지면 현장에 들어가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숫자로 드러난 위험을 읽는 일만큼 숫자에 드러나지 않은 이상 징후를 알아채는 일도 중요하다. 감독 경험이 쌓인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을 오래 지켜봤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현장의 상당 부분은 서울에 있다. 주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본점이 서울에 있고 금융협회와 자본시장 관계 기관도 밀집해 있다.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감독 대상까지 함께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직원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런 업무의 이중화다. 금융위와의 정책 협의를 위해 세종을 오가고, 금융회사 검사와 현장 대응을 위해 서울을 찾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특히 금융시장에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기관 간 신속한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물론 KTX를 몇 시간 더 탄다고 금융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이동에 쓰는 시간과 비용이 쌓이면 업무 효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 운영재원의 상당 부분을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도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다.

더구나 금융위가 세종으로 옮기면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과 이를 집행하는 기관의 업무 공간도 분리된다. 금융시장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회사 사이의 신속한 소통은 필수적이다. 두 기관이 떨어져 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긴밀한 협업을 유지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 떠난다. 금감원의 이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어느 기관을 어디로 옮길지에 대한 논의만은 아닐 것이다. 금융감독이 현장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으로 이전 이후의 업무 체계를 살펴볼 때다.

금융당국의 주소는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의 현장까지 함께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zelkova@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5일 (음 9월 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유망한 업을 물색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60년생** 심기가 편치 않습니다. **72년생** 이성과 다툼수가 있습니다. **84년생** 근심만 쌓이고 일은 풀리지 않고 얽혀만 갑니다.

49년생 희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61년생**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73년생** 사기를 당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85년생** 이성간에 문제는 해결은 되나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50년생 전공을 살리지 못합니다. **62년생** 새롭게 직업을 구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74년생** 주위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86년생** 스스로 화를 불러들인 격입니다.

51년생 마음을 비우고 사리사욕을 없애도록 노력하세요. **63년생** 육신의 고단함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75년생**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휴식하세요. **87년생** 금전운이 좋습니다.

52년생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64년생** 주변에서 다가오는 여성을 조심하세요. **76년생** 노력하면 대가를 얻게 됩니다. **88년생** 마음만 급하고 실천은 안일하니 뜻대로 이루어지기가 만무합니다.

53년생 배우자에게 따뜻하게 대하세요. **65년생** 은인이 원수가 되니 단호히 거절하세요. **77년생** 우유부단하면 주변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89년생** 사사롭게 흐르지 아니하면 크게 쓰일 것입니다.

54년생 일이 여의치 않으니 마음에 번민이 많습니다. **66년생** 밖에 나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78년생**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90년생**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55년생 좋은 인연이 생기게 됩니다. **67년생** 미래의 계획을 진심으로 고민해보세요. **79년생** 운의 흐름을 맞게 되어 기쁜 하루를 보냅니다. **91년생** 크게 바라지 않으면 이룰 수 있습니다.

56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68년생** 방황했던 마음을 바로 잡는 운입니다. **80년생** 의연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광명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92년생** 과음은 절대 금지!

57년생 지금의 사업에 충실하세요. **69년생** 소송이 있다면 다음 기회로 미루세요. **81년생** 집에 있는 것이 좋으니 외출을 삼가세요. **93년생**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 문제의 답이 나오겠습니다.

58년생 망설임보다는 자신감 있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70년생**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깨달으세요. **82년생** 새로운 시도는 피하고 마무리에 힘쓰세요. **94년생** 서두리지 말고 차근차근 노력하세요.

59년생 기대하던 결과가 없더라도 실망은 금물입니다. **71년생** 노력만큼 결실을 맺기는 힘듭니다. **83년생**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동료와 의논하세요. **95년생** 서두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김상회의 四季

촛불 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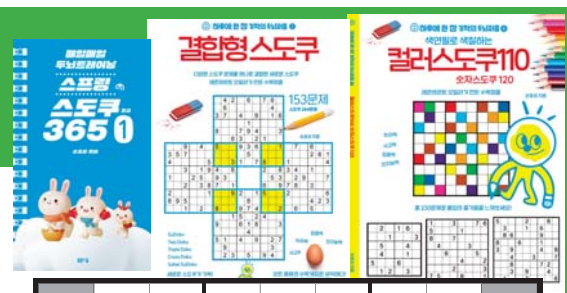
밤을 밝히는 대표적인 것이 호롱불을 포함한 등불류와 촛불이다. 등불은 기름을 사용하여 심지를 담궈 불을 붙이는 형식이라 동물성 또는 식물성 기름이 필요하며, 심지에 밀랍이나 왁스 등을 넣어 불을 붙인 양초 자체를 뜻하지만, 무엇보다 촛불은 지혜와 희생을 상징한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지혜의 현현이요, 자신의 몸을 태워 주위를 환하게 비추니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인가, 고대로부터 실내조명과 같은 실생활의 보조도구로서뿐만 아니라 제사나 제례는 물론 종교적 의식 등에 사용됐다. 카톨릭 기독교의 경우 영적 의미로서 대림절에 사용되는 네 개의 촛불은 각각 소망·평화·기쁨·사랑을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영적 준비를 시각화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사찰이나 암자에서도 촛불을 켜고 향을 올리는 것은 전통적인 예불 의례인데 요즘은 인공 촛불로 대체된 절이 다수이다. 산속에 있기에 화재 위험 때문이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만큼은 개인을 위한 촛불 기도의 경우에는 촛농의 모양을 보면 기도성취가 수월할지도 가늠이 된다. 촛불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독교는 물론 불교에서처럼 신앙적 상징으로 쓰이는 것이 전통이었지만 일반인들의 삶에서도 촛불이 갖는 의미는 지대하다. 결혼식 때에도 '화촉을 밝힌다' 라고 하지 않는가? '화촉(華燭)'은 빛깔을 들인 밀초를 의미하며, 귀한 밀초를 사용하는 것이 축복이었기에 '화촉을 밝히다'가 결혼을 상징하게 되기도 하였지만, 기독교의 성경적 의미로는 신랑과 신부가 각각의 촛불을 켜서 중앙의 하나 된 촛불에 합치는 '단일 촛불'의식이다. 민주화 운동이나 시민운동을 할 때도 촛불 행진이나 촛불 집회가 열리곤 한다. 촛불을 들고 비폭력 저항을 표명하는 집회를 '촛불 집회'라 각종 정치적 사적회 이슈에서도 단골 메뉴 집회가 된듯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한입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1	6			5		
				8				
8					4			3
4								
	1		3		7		6	
								5
6			4					1
				1				
		7			5	8		2

7			9	1	8		5	3
							2	
	4	9	3					2
				2				
2					4	1	8	
	5							
8	1		4	7	5			6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4	7	2	9	6	5	8	3
9	3	2	6	8	5	7	1	4
6	8	5	4	3	2	7	9	1
7	6	3	8	9	1	2	4	5
5	1	8	3	4	7	2	6	9
4	2	9	8	5	6	3	1	7
8	5	6	1	7	4	9	2	3
2	9	4	5	8	3	1	7	6
3	7	1	6	2	9	5	4	8

8	1	3	4	7	5	2	9	6
9	7	2	8	3	6	5	1	4
6	5	4	1	9	2	8	3	7
2	3	7	5	6	4	1	8	9
1	6	8	7	2	9	3	4	5
5	4	9	3	8	1	6	7	2
3	8	5	6	4	7	9	2	1
4	9	1	2	5	3	7	6	8
7	2	6	9	1	8	4	5	3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13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1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고분양가에 '선당후곰' 청약 확산

〈먼저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

서울 아파트 10곳 중 4곳 '줍줍'

올해 서울 21개 단지 중 9곳 재공급
청약 경쟁률 44대 1 단지도 미계약
전 주택형 1순위 마감에도 계약 포기
무순위·임의공급 공고 19건 달해
6곳은 두 차례 이상 추가 모집 진행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서울 아파트 청약 열기와 미계약 물량의 추가 공급 상황을 나타낸 이미지.

올해 서울 청약 단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무순위나 임의공급 등 이른바 '줍줍'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진 분양가와 자금조달 부담 등으로 1순위에서 전 타입이 마감되거나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단지에서도 미계약분이 나왔다.

14일 홈두부에 따르면 청약홈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진행한 서울 민영아파트의 일반 본청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21개 단지 중 9곳에서 무순위·임의공급을 공고했다.

9개 단지에서는 무순위 16건과 임의공급 3건 등 총 19건의 공고가 나왔다. 이 가운데 6개 단지는 추가 모집 공고가 두 차례 이상 이어졌다.

해링턴플레이스 노원 센트럴은 무순위 2회와 임의공급 2회, 더 리치먼드 미아는 무순위 3회와 임의공급 1회를 공고했다.

래미안 엘라비네, 아크로 리버스카이,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드파인 아르티아에서도 각각 무순위 2차 공고까지 확인됐다.

9곳 중 7개 단지는 본청약 당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0대 1 이상이었다.

충정로역자이르네는 44.5대 1, 써밋 더 힐은 32.5대 1,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26.9대 1, 래미안 엘라비네는 25.6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아크로 리버스카이(19.9대 1), 드파인 아르티아(18.8대 1),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10.7대 1) 등도 이후 추가 모집으로 이어졌다.

해링턴플레이스 노원 센트럴, 써밋 더 힐, 아크로 리버스카이,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충정로역자이르네 등은 전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지만 1차 무순위에서도 미계약분이 나왔다.

이수빈 홈두부 연구소장은 "청약 접수 단계의 경쟁률과 마감 여부가 실제 계약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분양가와 자금 조달 부담, 배정된 주택형과 동·호수에 대한 선호도 계약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더 리치먼드 미아는 일반분양 99가구 중 98가구가 추가 모집 물량으로 나왔으며, 해링턴플레이스 노원 센트럴 역시 61가구 중 58가구가 시장에 다시 나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국토부 산하기관 퇴직자 '전관 재취업' 논란

퇴직자 110명 재취업 140건 확인
건설·설계업체 이직 78%가 3년 후
사장·고문 등 고위직 재취업 잇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퇴직자들이 출신기관의 거래업체로 재취업하면서 공공공사 수주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건설·엔지니어링·설계업체 재취업 사례의 약 78%가 취업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뒤 이뤄져, 기간 준수 여부만으로는 발주기관과 업체 사이의 유착 가능성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퇴직자 110명의 재취업은 140건으로 집계됐다. 건설·엔지니어링·설계업체로 옮긴 사례는 36건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28건(77.8%)은 취업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뒤 이뤄졌다. 건설·엔지니어링·설계업체의 사장·고문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사례는 29건, 27명이었다.

업체별로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인 유신이 LH와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출신 4명을 영입해 가장 많았다. 동명기술공단은 국가철도공단 출신 2명을 부회장과 사장으로 채용했다.

재취업 업체들은 퇴직자들의 출신기관과 공사·용역 계약을 맺어왔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일성건설과 LH의 계약액은 7640억원이었다. 동부건설과 국가철도공단의 계약액은 1조259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신과 국가철도공단의 올해 1~8월 계약액은 359억원으로, 2015년 이후 연간 최대였던 2022년의 313억원을 넘어섰다. 다만 계약 실적과 퇴직자 영입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취업제한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2021년 7월 19일 국가철도공단을 퇴직한 임원은 정확히 3년 뒤인 2024년 7월 19일 동부건설 고문이 됐다. 2021년 2월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떠난 임원도 2024년 2월 2일 동명기술공단 고문으로 옮겼다.

퇴직 3년이 지난 직후 사흘 안에 재취업한 임원은 5명, 한 달 안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11명이었다. 한 달 내 재취업 인원은 제한기간 종료 직전 1년 동안 재취업한 8명보다 많았다.

공공공사의 안전 문제로 제재가 거론된 업체가 퇴직자를 영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 사고의 설계사인 제일엔지니어링은 사고 발생 50일 뒤 국토부 고위공무원 출신을 사장으로 채용했다. 관련 제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벌점 부과 권한은 국토부에 있다.

복 의원은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면 취업심사 대상에서 벗어나는 만큼, 기간 준수 여부와 별개로 발주기관과 거래업체 사이의 이해충돌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발주기관 임원이 3년을 채우자마자 거래업체로 옮기는 것을 국민은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취업제한이 날짜만 지키면 그만인 형식적 절차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 경험과 인맥이 특정 업체의 수주 경쟁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세금이 걸린 공공공사인 만큼 기관들이 이해충돌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

LH 공동주택 가구당 하자 3년 새 2배 급증

가구당 하자 5.1건서 11.5건
중대하자 534건서 71건 감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중대하자는 줄었지만, 가구당 전체 하자 접수 건수는 3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LH는 도배·창호 등 생활 불편을 유발하는 하자를 줄이기 위해 시공 방식을 개선하고 준공 전 점검과 입주 후 보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LH에 따르면 공공분양·분양전환 공공임대·장기공공임대 주택의 가구당 하자 접수 건수는 2022년 5.1건에서 2025년 11.5건으로 약 2.3배 늘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8.0건으로 줄었다. 하자 건수는 입주 후 1년간 접수된 누적 건수다.

반면 주요 구조부의 균열·침하·누수 등 구조적 안전이나 입주민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중대하자는 같은 기간 534건에서 71건으로 감소했다. 집계 대상 가구수는 2022년 4만7863호, 2025년 2만2006호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2만2290호에서 중대하자 40건이 집계됐다.

LH는 주거 품질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입주 전 세대 점검이 세밀해진 점을 전체 하자 접수 증가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다만 하자 증가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하자 접수 비중은 도배가 20%로 가장 높았고 창호 18%, 바닥과 가구 각각 11%, 타일 9% 순이었다. 도배와 창호가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LH는 벽지 오염을 막기 위해 골판지 보양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벽체에는 긁힘·오염 방지용 시트패널을 선택 사양으로 도입했다. 창틀 처짐과 떨림을 줄이기 위해 단열재 성능을 개선해 창틀 폭을 줄였으며, 창틀의 고정력을 높이는 하부 고정철물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준공 전 하자를 찾아내는 점검도 강화했다. 올해 초부터 모든 준공 지구에 '준공 품질 사전 컨설팅'을 도입해 LH와 시공사·감리사·고객서비스(CS) 전문업체가 주요 하자와 보완 사항을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현진 기자

DL이앤씨, 글로벌 4개사와 '아크로 성수' 설계

성수2구역 랜드마크 조성 구상
핵심 콘셉트 '키스톤' 설계 적용



아크로 성수 커뮤니티 내 키스톤 라운지바./DL이앤씨

DL이앤씨가 글로벌 디자인사 4곳과 손잡고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성수2구역)에 제안한 '아크로 성수' 설계 구상을 14일 공개했다. 아크로 성수의 핵심 설계 콘셉트는 '키스톤(KEYSTONE)'이다. 아치 구조의 맨 위 중앙에서 전체 구조의 균형을 잡는 돌을 뜻한다. 문화와 자본이 모이는 성수의 가치를 구현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건축 설계를 맡은 아르카디스는 글로벌 건축·엔지니어링·컨설팅 그룹이다. 두바이 '로열 아틀란티스 호텔&레지던스'와 미국 베벌리힐스 '포시즌스 프라이빗 레지던스' 등에 참여했다. 아크로 성수의 세대 공간과 커뮤니티·조경을 연계해 절제된 미학을 풀어낼 예정이다.

야부 푸셸버그는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클럽 아크로'와 공용 공간을 디자인한다. 복층 구조의 '시그니처 라운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시설과 일상 동선을 연결한다.

도시재생 설계 전문가 MSP는 자연과 예술을 결합한 '아크로 가든 컬렉션'을 선보인다. 한강과 서울숲, 성수의 지역 문화를 엮어 조형 공간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관조명은 퀼른 대성당과 카타르 국립박물관의 조명을 디자인한 리히트 쿤스트 리히트가 맡는다.

/성채리 기자 cr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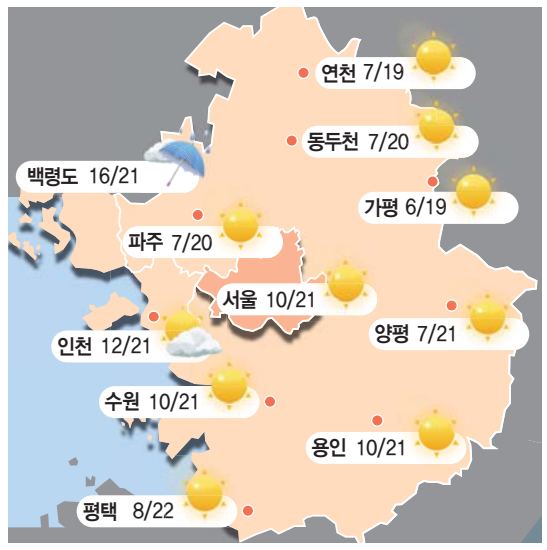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40 | 해짐 / 17:56

10월 15일 (木)
음력 : 9월 5일

수도권 날씨
10~21℃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마저 시큰둥한 '총살형 생중계'… 美국방부는 '그래도 한다' /사진 뉴시스

▲중국 기업인들 쿠릴 방문에 日정부 "日영토… 수용못해"

▲아르헨,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말비나스(포클랜드)제도의 英석유채굴 금지 신청

▲사우디 아라비아 여러 곳에서 미사일 6기 무인기 3대 요격 성공

▲中전문가, 한·중 서해 공동순찰 재개에 "상호 신뢰 반영"

▲러 일본인 기자 체포에 日정부 "공정·공평 대우 요청"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제6013호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홈플러스 매출부진 M&A 난항 L1

Life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지역 의료기관 잇고 중증진료 강화 L2



손끝에 끼워 먹던 추억 위에, '야장의 낭만'을 얹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롯데웰푸드 '꼬깔콘'

1983년 출시된 롯데웰푸드의 '꼬깔콘'은 과자를 손가락에 끼워 하나씩 벗겨 먹는 독특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각인된 제품이다. 고소한 옥수수 맛과 바삭한 식감에 먹는 재미까지 더해 40년 넘게 사랑받아 왔다. 최근에는 2030세대의 야장 문화를 접목한 신제품으로 소비자 관심을 끌며 장수 브랜드의 변신을 이어가고 있다.

꼬깔콘은 1982년 5월 롯데웰푸드와 미국 제너럴밀스의 기술 제휴를 통해 탄생했다. 이듬해 평택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출시 첫해 약 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1984년에는 전년의 두 배가 넘는 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연간 400억~500억원대 매출을 기록했고, 2015년부터는 매년 850억~1000억원 수준의 실적을 냈다.

장기간 쌓아온 판매 실적도 꼬깔콘의 시장 내 입지를 보여준다. 1983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38년간 누적 매출은 1조 485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판매량을 봉지 수로 환산하면 약 28억 봉지다. 독특한 고깔 모양과 옥수수 특유의 고소한 맛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소비자 선택을 받아온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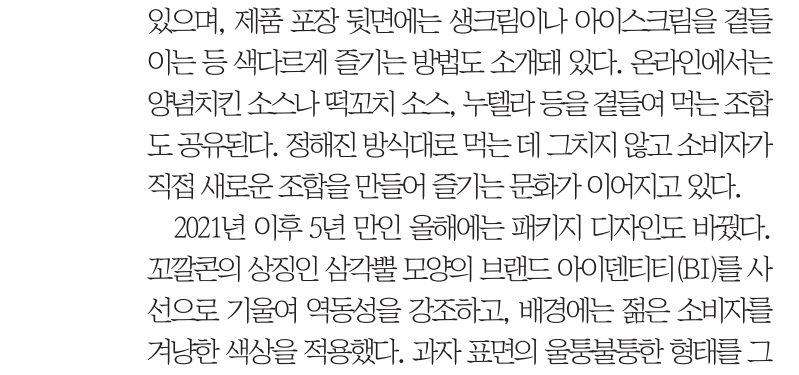
◆ 익숙한 맛에 다양성 더해…먹는 방식도 차별화

꼬깔콘의 경쟁력은 고깔 모양과 옥수수 맛이라는 고유한 특징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취향에 맞춰 제품군을 넓혀온 데 있다. 출시 당시에는 고소한맛을 중심으로 선보였으며, 이후 군옥수수맛과 매콤달콤맛 등으로 선택지를 늘렸다. 대표 제품 외에도 시즌별 제품을 출시하며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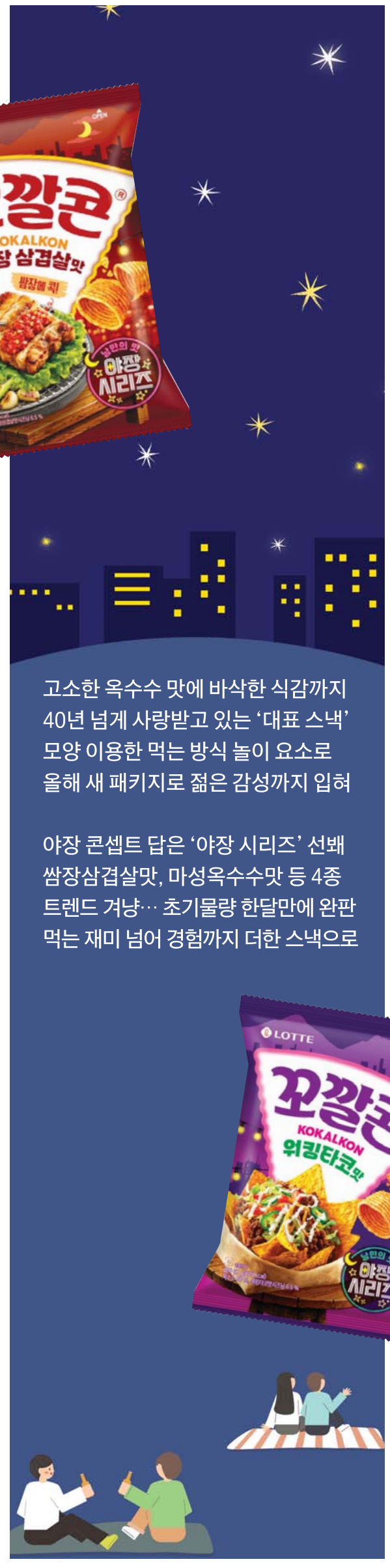
과자를 먹는 방식 자체가 소비자에게 놀이 요소가 된 점도 특징이다. 꼬깔콘은 손가락에 끼워 먹는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제품 포장 뒷면에는 생크림이나 아이스크림을 곁들이는 등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도 소개돼 있다. 온라인에서는 양념치킨 소스나 떡꼬치 소스, 누텔라 등을 곁들여 먹는 조합도 공유된다. 정해진 방식대로 먹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즐기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이후 5년 만인 올해에는 패키지 디자인도 바꿨다. 꼬깔콘의 상징인 삼각뿔 모양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사선으로 기울여 역동성을 강조하고, 배경에는 젊은 소비자를 겨냥한 색상을 적용했다. 과자 표면의 울퉁불퉁한 형태를 그래픽에 반영하고, 브랜드명 아래에는 영문 'KOKALKON'을 함께 표기했다. 우측 하단에는 '소리까지 맛있다'는 슬로건을 넣었다.

롯데웰푸드의 자체 소비자 조사에서는 새 패키지가 기존 디자인보다 새로움과 차별성, 트렌디 요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0대부터 40대까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관련 항목 점수는 기존 디자인의 3점대에서 4점대로 상승했으며, 특히 10대와 20대의 반응이 두드러졌다.



롯데웰푸드 꼬깔콘 패키지 리뉴얼.





마트 내 과자코너에 꼬깔콘 쌈장삼겹살맛 품절 안내가 게시돼 있다.

◆ 야장 트렌드 접목한 신제품…출시 한 달 만에 초기 물량 소진

최근 꼬깔콘은 제품의 맛뿐 아니라 소비자가 경험하는 문화적 요소까지 확장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선보인 '꼬깔콘 야장시리즈'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한 야장 문화를 콘셉트로 기획됐다. 야장은 야외에서 식음료를 즐기는 문화를 뜻한다. 익숙한 스낵에 야외에서 음식을 즐기는 분위기를 접목해 간식과 안주 수요를 함께 겨냥했다.

야장시리즈는 '꼬깔콘 쌈장삼겹살맛', '꼬깔콘 마성옥수수맛', '꼬깔콘 워킹타코맛', '꼬깔콘 버터구이오징어맛' 등 4종으로 구성됐다. 삼겹살과 쌈장의 조합부터 멕시코 길거리 간식 엘로테, 토마토 살사와 멕시칸 스파이스, 버터구이오징어의 풍미까지 각기 다른 맛을 담았다.

이 가운데 쌈장삼겹살맛은 출시 한 달여 만에 납품 기준 21만 봉이 판매됐다. 당초 3개월간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한 초기 물량이 한 달 만에 소진된 것이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주말 사이 제품이 품절되거나 추가 진열에 나서는 사례도 나타났다. 대형마트 기준 점포당 하루 평균 판매량은 50개 이상으로 집계됐다.

야장시리즈 전체 판매량도 빠르게 늘었다. 롯데웰푸드에 따르면 시리즈는 출시 보름 만에 누적 판매량 80만 봉을 돌파했다. 쌈장삼겹살맛을 제외한 나머지 3종은 주요 편의점별로 판매처를 달리해 선보이고 있다. 마성옥수수맛은 GS25, 워킹타코맛은 CU, 버터구이오징어맛은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하며, 쌈장삼겹살맛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이커머스 등에서 만날 수 있다.

판매처가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이 4종을 모두 찾아 구매하거나 매장별 재고를 공유하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타나고 있다. 제품을 실제 쌈장에 찍어 먹거나 고기와 함께 쌈을 싸 먹는 등 제품 콘셉트를 활용한 콘텐츠도 이어지고 있다. 제품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새로운 먹는 방법을 만들고 공유하는 소비 행태가 관심을 키우는 모습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입소문과 재미있는 후기들이 이어지며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준비한 물량이 소진됐다"며 "현재 쌈장삼겹살맛을 비롯해 꼬깔콘 제품 전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생산라인을 최대한 가동하며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수 브랜드의 익숙함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더하는 전략이 꼬깔콘의 장기 흥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한화, 정우주·황준서·박준영·강건우 日 넥스트 베이스 파견 /사진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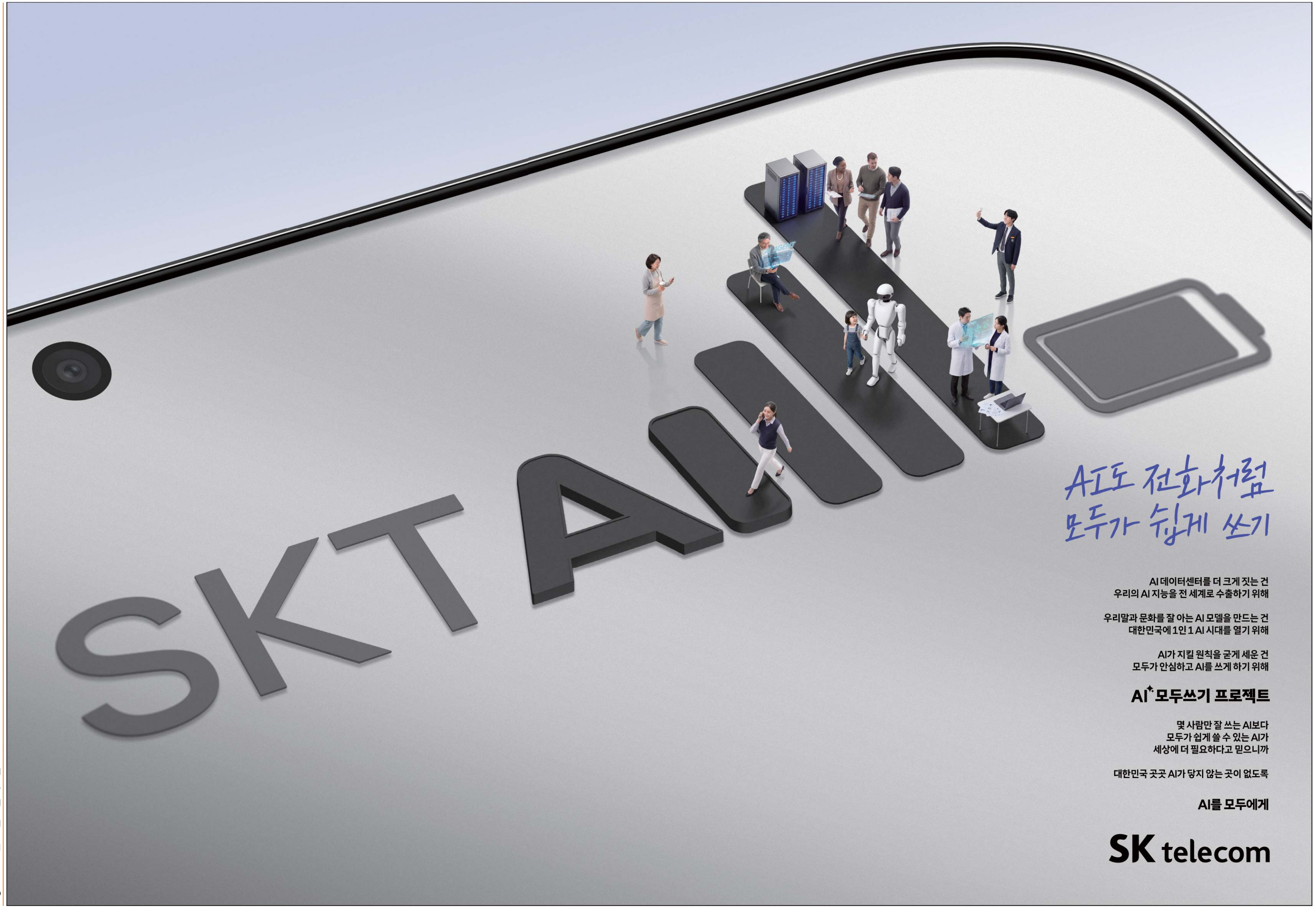
▲이승엽 전 감독, 1년 만에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떠난다

▲프로농구 정관장, 소노 85-81 격파…무니·아반도 맹활약

▲'4만석' '2만석' 이상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만든다

▲올 가을 궁중문화축전 44만명 찾아…외국인 26%

▲피아니스트 임윤찬,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내년 5월 첫 협연



AI도 전화처럼
모두가 쉽게 쓰기

AI 데이터센터를 더 크게 짓는 건
우리의 AI 지능을 전 세계로 수출하기 위해

우리말과 문화를 잘 아는 AI 모델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에 1인 1 AI 시대를 열기 위해

AI가 지킬 원칙을 굳게 세운 건
모두가 안심하고 AI를 쓰게 하기 위해

AI 모두쓰기 프로젝트

몇 사람만 잘 쓰는 AI보다
모두가 쉽게 쓸 수 있는 AI가
세상에 더 필요하다고 믿으니까

대한민국 곳곳 AI가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AI를 모두에게

SK telecom